

# Sulwhasoo

VOL.91 MAY/JUNE 2019

Sulwhasoo

Sulwhasoo

MAY/JUNE 2019





Origami Series / 소동호  
한지 미술 / 2009

하얀 결의 고운 종이 있다. 판판한 종이는 나름의 쓰임이 있지만 소동호 작가의 손길로 접히고 접힌 종이는 이내 우아한 조형미를 뽐내는 오브제가 된다. 조명 펜던트, 캔들 라이트로 제작되고 빈 공간에 무심히 두어도 존재감이 친연하다. 불을 밝히면 한지가 은은하게 머금은 빛이 따뜻하게 속삭이고, 불을 끄고 자연의 빛이 닿는 것으로도 공간을 온유하게 밝힌다.

단 두 가지 재료, 한지와 미송으로 빚어낸 부드럽고 기품 있는 조형미는 접어진 면들을 통해 생겨난 굴곡 덕분이다. 굴곡에 맺힌 음영은 입체감을 극대화하고 정결한 실루엣을 그려낸다. 소재와 재료, 기법을 탐구하며 한국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을 찾길 바라는 소동호 작가의 아름다운 생각까지 깃들어 더 빛난다. 10년 전 첫 작업으로 선보였지만 '오리가미 시리즈'는 그의 첫 마음, 새 마음이 담겨 있기에 여전히 새롭고 완연하게 드러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

There is a piece of fine, white paper. A piece of hardboard is also useful, but artist Dong Ho So prefers to fold a thin sheet of paper turning it into a graceful-looking object. These objects are great for lighting pendants and candle light, and attract attention when placed in an empty space. Korean paper diffuses a warm whisper of subtle light when lit, and lights up the space when natural light touches it.

Smooth and elegant shapes are made of just two materials—Korean paper and wood—and folded sides create curves. The shades cast by the curves maximize the three-dimensional effect, and draw a neat silhouette. The objects appear even brighter with the beautiful mindset of artist So, exploring materials and techniques while in search of his identity as a Korean designer. He presented his first piece 10 years ago, but the 'Origami Series' remains new and flawless in reflecting his fresh mindset.

단단한 기본으로 만들어낸 피부 자신감  
에센셜 라인

*Essential Line*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단계별로 영양과 생기를 부여하는 에센셜 라인은 얼굴에 본이 다른 아름다움을 꽃피웁니다.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factors  
The Essential Line nourishes and revitalizes the skin step-by-step  
to enhance your beauty beyond your expectations.



# Sulwhasoo

MAY/JUNE 2019

##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귀한 원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진귀한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설화수.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피부 균형을 다스리는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한 효능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 아시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treats the skin from within by incorporating modern skin science into legendary ingredients infused with timeless Asian wisdom and presents holistic beauty to restore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The Sulwhasoo brand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pursues beauty reminiscent of nature with precious natural ingredients and delivers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by creating beauty from the inside out. Sulwhasoo globally promote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with the JAUM Balancing Complex™, an optimal blend of five ingredients, carefully selected from more than 3,000 medicinal herbs, Korean ginseng, the legendary ingredient that makes Sulwhasoo's unique formulas even more special, and Sulwhasoo's cutting-edge Bio-conversion Technology™. As of 2019, Sulwhasoo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sian Beauty Creator, operating in 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outh Korea, Mainland China, Singapore, Hong Kong(China),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the US, Canada and France.

# Sulwhasoo

VOL.91 MAY/JUNE 2019



##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시간을 거스르는 아름다운 도전
- 12  
**피부 섬기기**  
젊음의 밸런스를 되찾아주는 귀한 처방
- 16  
**新 장인을 만나다**  
탐구심으로 자신의 시간을 채우다
- 22  
**공간미감**  
자연과 예술이 일치하는 순간
- 28  
**건너다**  
섬세한 손길로 피워낸 고귀한 아름다움

## 누 리 다

- 36  
**설화인**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강하다
- 44  
**어우러지다**  
사유와 명상이 있는 여백의 공간
- 50  
**설화풍경**  
가장 귀하고 진실된 선물은 자연이다
- 54  
**설화보감**  
맛과 멋, 추억을 싸다
- 60  
**아름다운 기행**  
물 위로 흐르는 아득한 인생
- 66  
**설화수를 말하다**  
영롱하고 찬란하게 스스로 빛나라
- 72  
**설화공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세 번째 봄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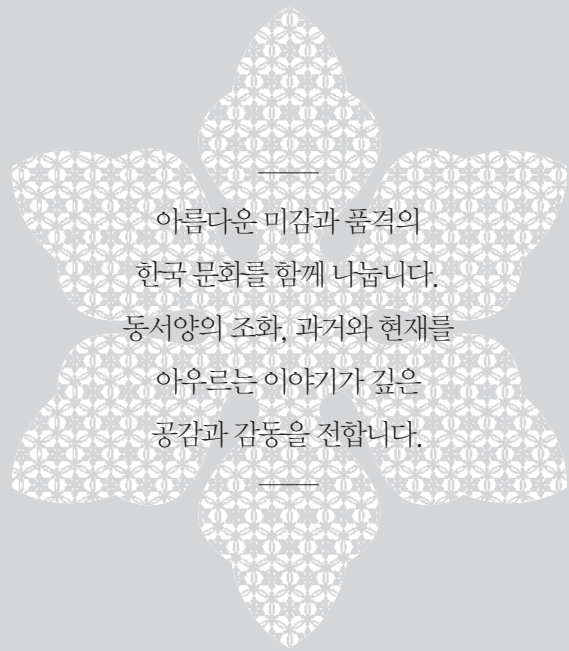
##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책을 읽는 기쁨
- 82  
**한국의 멋**  
감사와 축원을 담은 성스러운 그릇
- 84  
**설화애장**  
입말로 이어지는 맛있는 인생
- 86  
**읽다**  
낮선 소재원, 다정히 바라보다
- 90  
**집 안 단장**  
그릇과 예술 사이
- 92  
**몸 단장**  
생동하는 에너지로 물들이다

- 94  
**프로덕트맵**
- 97  
**문화 즐기기**
- 98  
**독자 선물**

발행일·2019년 5월 1일(통권 제91호)  
발행인·안세홍 편집인·강병영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이응주, 이윤)  
제품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디자인·가야 미디어 02)317-4921 편집·박효성, 인스연 디자인·이영보  
사진·GURU visual 02)747-6123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http://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 펼 치 다

# 시간을 거스르는 아름다운 도전 The Wisdom of Cleansing to Get Clear Skin

인생에서 가장 젊은 마지막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시간은 여지없이 우리를 통과할 것이기에. 살아 있는 모든 존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생명력이, 그 상상함이 점점 사그라지므로.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문득 불로불사의 약을 찾아 평생을 애썼던 시황제의 고사를 떠올린다. 모든 세상에 엄청난 수의 사람을 보내 늙지 않는 영약을 구했던, 그 무소불위의 권력자 역시 자연의 순리는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은 인간이 가졌던 가장 오랜 바람이다. 이 불가능한 꿈에 다가가기 위해 인류는 수많은 도전을 해왔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노화는 다양한 원인과 복잡한 기전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서양 의학에서는 무려 300개가 넘는 노화에 관한 학설이 존재한다. 이는 아직 주된 학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들 학설은 노화를 크게 두 개의 원인으로 분석한다. 먼저 유전인자설로, 세포의 발생과 성장, 분화와 사멸이 모두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죽음 역시 이 프로그램 안에 있고 노화는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뜻한다. 나머지 하나는 환경인자설이다. 기온이나 방사선, 운동, 영양 등 신체와 생활을 둘러싼 외부 요인들이 노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다.

The old story of Qin Dynasty's Shi Huangdi, who spent his whole life in search of the elixir for eternal life, has come to mind. He sent an enormous number of people around the world to look for the elixir, but even a man with such omnipotent power could not avoid the law of nature. Nevertheless, it has been mankind's oldest wish to be young and beautiful for all eternity. Mankind has made so many challenges in pursuit of such impossible dream.

What does it mean to age? It is difficult to define aging clearly because of various causes and the complicated mechanism. In Western medicine, there are more than 300 theories about aging. This means that there is no major theory. Aging is considered in most theories based on two major causes: first, there is the theory of genetic factors that the birth and growth, differentiation and death of cells are genetically programmed. Death is also a part of this program, and aging is within a process toward death. The other is the theory of environmental factors. It is believed that aging is affected by factors surrounding the body and lifestyle, such as temperature, radioactivity, exercise, and nutrition.

The Book of 'Rise and Fall of Energy' in <Donguibogam> states that "The Yin energy is naturally halved when you turn 40, and your energy for everyday life weakens." It points out that



독일 공방에서 만든 유리 모래시계 by 포인트오브뷰. 아이보리와 옐로 대리석 불은 모두 모네프. 매트한 질감의 그레이 화병은 신광섭 작가. 골드 도자기 접시는 이혜미 작가. 적동에 법랑을 입힌 미니 불은 김윤진 작가. 푸른 유리 문진 by 포인트오브뷰.



한편 <동의보감>의 '기의 성쇠' 편에서는 "40세가 되면 음기가 저절로 반으로 줄어들어 일상생활에서의 기력이 쇠하게 된다."고 전하는데, 여기서 음기인 정이 절반으로 주는 것을 노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즉 한의학에서 노화는 오장五臟 가운데 신腎, 즉 콩팥의 기능이 쇠약해지며 일어난다고 판단한다. 콩팥의 정혈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주름이 깊어진다. 젊음을 상징하는 화사한 빛도 점점 멀어지고 만다.

이런 피할 수 없는 노화를 막기 위한 비책도 다양하게 등장했다. <동의보감>에서는 신장의 기능을 보하는 생지황, 산삼, 복령, 꿀 등으로 만든 탕약인 경옥고를 노화의 명약으로 소개하고 있다. 고운 피부를 위한 재료도 전해온다. 황실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널리 쓰인 소나무(적송)와 인삼, 백복령과 맥문동 등의 처방은 현대로 와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설화수 역시 시간을 거스르는 아름다움을 위해 연구 중이다. 진설아이크림과 진설아이에센스는 노화가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눈가 케어에 주력한다. 특히 메인 성분인 적송의 피부장수인자 DAA는 설화수의 정성과 기술의 집약이라 할 수 있다. 진설아이크림은 고농축 DAA를 함유해 피부 생명력을 강화하고 노화 노폐물을 제거해 흔적을 개선하며, 세월의 흐름으로부터 생기는 눈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더욱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준다. 또한 복령 추출물이 눈가 피부를 탄탄하게 가꾸어주고 홍삼·백삼의 사포닌 효능까지 더해져 눈가 노화로 생기는 여러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진설아이에센스는 골든아이케어마사지가 함께 내장되어 있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눈가 칙칙함, 부기 등의 피부 고민에 대응하여 눈가 피부 컨디션을 케어해준다. S

losing half of the Yin energy is a cause of aging. In other words, Korean medicine explains that aging occurs when the kidney begins to weaken. When the kidney lacks energy, the skin will dry out, lose resilience, and form deeper lines. The radiance of youth will also become dim.

There were many solutions to defy unavoidable aging. <Donguibogam> introduces Gyeongokgo as a solution to aging. It is formulated with fresh Rehmannia, Wild Ginseng, Poria cocos, and Honey to strengthen the kidney. There are other ingredients for fine skin. Pine (Red pine), Ginseng, White Poria cocos, and Liriope platyphylla were widely used by royal women to stay beautiful, and their efficacies have been proven scientifically.

Sulwhasoo is also researching thoroughly to attain beauty against time. Timetreasure Invigorating Eye Cream and Eye Serum are specialized for the eye area, where the signs of aging appear earliest and most prominently. DAA, the skin longevity factor from Red Pine, is the essence of Sulwhasoo's devotion and technology. Timetreasure Invigorating Eye Cream contains highly concentrated DAA to fortify skin, remove impurities that cause aging, and resolve structural issues caused by the passage of time for younger-looking eyes. Also, Poria cocos extracts firm the eye area, while the Red Ginseng and White Ginseng Saponin can wisely resolve different issues around the eye area. Timetreasure Invigorating Eye Serum comes with the Golden Eye Care Massager to keep the eye area in good condition against problems caused by external stimuli.

#### 진설아이크림

고농축 적송의 강인한 생명력에 복령, 송이 성분을 더해 눈가 피부의 힘을 길러주어 탄탄하고 또렷한 눈매로 가꾸어준다. 세월의 흐름이 여실히 드러난 눈가 피부의 주름은 감춰주고, 눈가 피부를 탄탄하게 케어해준다. 도통하고 밀착력이 뛰어난 그물망 제형으로 매끈하고 탄력있게 피부를 감싼다. 25ml 27만원

#### 진설아이에센스

고농축 적송과 골든아이케어마사지가 눈가 피부 컨디션을 케어한다. 섬세한 눈가 피부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순금 마사저로 눈가 부기와 칙칙함까지 관리할 수 있다. 가벼운 제형으로 눈가에도 부담이 없고, 24시간 강력한 보습력으로 자친 피부에 생기를 더해준다. 25ml 27만원



황동 받침과 향꽃이 by 살림아플리에, 모래시계 by HAY, 화이트 바닥은 'DEW 380' by 던에드워드 노현정.



# 젊음의 밸런스를 되찾아주는 귀한 처방

## The precious formula to restore the balance of youth

결코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설화수는 피부 균형을 맞추는 데에 집중했다.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등 5가지 젊음의 지표를 균형 있게 끌어올려 주는 설화수의 윤조에센스는 변함없이 이어나갈 보배로운 처방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윤조에센스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설화수의 대표 제품이자 지난 1997년 출시 이래 부동의 베스트셀러다. 22년 동안 한국을 넘어 세계 여성들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새로운 뷰티 역사를 써왔다. 세안 후 처음 단계에서 바르는 '첫 단계 에센스', 한방 원료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부스팅 세럼이라는 생소한 개념의 제품이었던 윤조에센스가 이토록 오랫동안 변함없이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은 설화수만의 고유 처방인 '자음단™'에 있다. 이는 오직 피부의 이상적인 균형과 조화를 위해 애쓴 설화수의 정교한 정성과 단단한 자부심의 결과다. 옛 문헌에서 찾은 3,000가지 한방 식물로 수만 번의 실험을 거쳐 작약, 연꽃, 옥죽, 백합, 지황 등 5가지 최적의 원료를 채택하고 최상의 성분을 얻기 위해 약재를 가공하는 연구와 원료를 달이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각 원료가 가진 효능 성분을 훨씬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 고압을 가해 눈에 보이지 않는 표면적까지 흔드는 가공 기술은 물론, 배합한 원료를 10분 단위로 달여보며 18시간이라는 최적의 시간을 찾고, 꿀에 재어 숙성시킨 후 옹기에 넣고 굽는 포제 방법인 밀자법을 적용한 세심한 정성은 설화수의 자부심이자 윤조에센스의 핵심 성분인 '자음단™'에 오롯이 녹아 있다.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has been Sulwhasoo's signature product, pursuing Harmony and Balance, and has been the all-time best-seller since 1997. It has been written into the history of beauty with a reliable companion of women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for the past 22 year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was developed with a rather unique concept as the 'First step serum' to be applied right after cleansing, and was the world's very first boosting serum formulated with Korean medicinal herbs. As a result, it has been loved for such a long time because of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About 3,000 Korean medicinal herbs found in the old text were tested thousands of time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five optimum ingredients—Peony, Sacred Lotus, Solomon's Seal, White Lily, and Rehmannia. Sulwhasoo also researched several processing and brewing methods to achieve the best efficacies. Some of the methods include the technology to apply high pressure in shaking the ingredients thoroughly to extract more active substances from hidden surfaces, and brewing mixed ingredients while testing them every 10 minutes to determine that 18 hours was the optimal length of time necessary. In the meantime, Honeyed Process™ in POJE Optimizing Process™ helped ingredients matured in honey



매트한 질감의 회색 도자기 플레이트는  
신광섭 작가. 실버와 골드 컬러의 도자기  
그릇은 모두 이혜미 작가.  
네이버색 페인트는 DE5853 by  
던에드워드 논현점



**윤조에센스**

노화를 일으키는 피부 불균형 상태를 리셋해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등 5가지 젊음의 지표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끌어올리고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3,000가지의 효능 원료 중 엄선한 5가지 한방 원료로 정성스럽게 만든 자음단™이 무너진 균형으로 약해진 피부를 복원시켜 처음처럼 빛나는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설화수의 귀한 처방을 담았다.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하여 뒷단계 제품의 효과를 높이는 부스팅 에센스로 다양한 피부 타입에 지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 60ml 9만원, 90ml 12만원

윤조에센스  
사용법  
How to use  
Bloomstay Vitalizing Cream

금속과 나무 소재의 모빌은 김성희 작가 by twi shop.  
원형 우드 트레이는 이건민 작가 by OBJT.

설화수 고객들이 가장 많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구매하는 윤조에센스는 농축된 '자음단™'이 노화 징후를 다스리는 피부 보약이다. 젊은 피부의 5가지 지표인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이 흔들려 불균형을 이룰 때 노화가 시작되는데 윤조에센스는 피부 균형을 리셋해 총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처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윤조에센스가 선사하는 5가지 요소의 완벽한 균형을 젊음을 되찾아주고 건강한 피부에서 우러나오는 윤기를 만들어준다. 이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윤조에센스를 8주간 꾸준히 사용했을 때 5가지 지표가 각각 103퍼센트부터 최대 134퍼센트까지 개선되어 피부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윤조에센스 덕분에 회복된 피부 기초 체력은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는 피부 방어력을 증가시키고, 미세먼지의 공격에 대응하는 항산화 효과도 높여줘 피부를 건강하게 보살필 수 있다. 윤조에센스를 설명할 때는 '첫 단계 에센스'라는 소중한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세안 후 가장 먼저 발라 메마른 피부의 균형을 되찾는 역할을 하며 뒷단계에 바르는 제품의 흡수를 돕고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부스팅 에센스다. 윤조에센스와 함께 피부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지고, 피부 불균형을 리셋하는 것은 빛나는 윤기의 젊은 피부를 되찾는 안티에이징의 지혜로운 시작이다. S

before baking them in earthenware. All of these devoted methods are part of Sulwhasoo's pride, and are applied to JAUM Balancing Complex™, the key ingredient of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is purchased by Sulwhasoo customers in the largest numbers first and most frequently. It is a skin-restoring formula with the concentrated JAUM Balancing Complex™ to deflect signs of aging. Aging begins when the five indicators of youthful skin—Resilience, Vitality, Nourishment, Clarity, and Elasticity—lose balanc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resets skin balance to achieve ultimate harmony. These results have been proven by clinical studies; whe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was used for 8 weeks, the five indicators improved by 103% to as much as 134%, fortifying the basic strength of the skin. A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enhances the basic strength of the skin, it can defend itself from severe environmental factors and enhance antioxidants that work against fine dust attack for healthier ski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is well-known as the 'First step serum.' It is the boosting serum that is applied first after cleansing to restore the balance of dry skin and boost the absorption of other products. Enhancing the skin's basic strength and resetting the skin's imbalance with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is a wise way to begin an anti-aging regimen to restore youthful skin with shiny radiance.



**Step 1**  
양손을 비벼 따뜻한 윤기를 만든 후 윤조에센스를 양 손바닥에 퍼 바른다.  
Rub hands together and spread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over palms.



**Step 2**  
양 손바닥을 모아 향을 맡으며 호흡을 차분하게 정돈시킨다.  
Gather both palms and inhale the fragrance to experience its relaxing effect.



**Step 3**  
볼, 이마, 눈가 손으로 꼭꼭 눌러 내용물을 흡수시킨다.  
Press over the cheeks, forehead, and eye area for absorption.



## 탐구심으로 자신의 시간을 채우다

### So Dong Ho

독립 디자이너 소동호

그는 5년 전, 속칭 '을지로 조명거리'로 불리는 세운청계상가 옆 골목에 동네 이름을 딴 스튜디오 '산림조형山林造形'의 문을 열었다. 을지로의 위태로운 생명력처럼 불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리는 그곳에 앉은 디자이너 소동호는 조명의 것이 될 한지를 접거나, 고대 이집트인들이 앉았을 법한 스톨을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다.

글 최태원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매력적이지만 재개발 등의 이슈로 불안함이 공존하는 '을지로'란 공간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재료와 기술이 집약돼 특화된 공간인 을지로는 학생 때부터 줄곧 드나들던 친숙했던 곳이죠. 그랬던 곳에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훗날 디자이너가 되어 입주했으니, 각별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요. 생활해보니 다양한 재료나 기법들을 지척에서 보고 구할 수 있어 디자이너에겐 최적화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제 작업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주변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가구와 조명 작업에 주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작업 방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제게 있어 가구와 조명, 혹은 공공 디자인이나 아트 디렉팅 같은 작업들은 그저 제 호기심과 고민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저는 꾸준히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고 만질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을 뿐이죠. 다시 말해, 제 작업은 흥미로운 재료를 발견하면 그 재료의 특성이 어떤 오브제에 걸맞을까를 고심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견된 재료로 가구보다 조명에 맞는 소재를 많이 발견한 것이 다른 디자이너들과의 차이라면 차이겠죠.

**How is it living in 'Eulji-ro'? It's an attractive place, but it's unsettling because of redevelopment and other issues.** Eulji-ro is a specialized location with materials and technology. I have been familiar with it since I was in school. It is the best venue for a designer because you can find various materials and techniques in the area. I am getting so much help from nearby merchants who have a profound understanding of my work.

**I know that you are concentrating in furniture and lighting. Could you specify your manner of creation?** For me, furniture, lighting, public design, and even art directing are just the outcomes of my curiosity and contemplation. I want to be a designer who constantly explores and works with various materials. In other words, my work is an endless process of pondering which objects would go with the properties of certain materials I discover. What makes me different from other designers would be discovering more materials for lighting than for furniture.



**그렇다면 다양한 재료에 대한 탐구심으로 어떤 디자인을 추구하는 건가요?**  
어떤 순간에는 디자인이 꼭 기능적이거나 사용에 맞춰지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쓰임이 주목적이 아니어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험적 디자인이 필요하고 또 가능해지겠죠. 저에게 주어진 디자이너로서의 전체적인 시간을 생각하면서,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 혹은 색깔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말하자면, 한국 디자이너로서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이죠. 시간 날 때마다 다양한 기법의 전통공예를 배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고민한 결과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전에는 틈틈이 습득한 전통공예 기법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또 저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지를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장인과 현대 디자이너와의 협업, 그 자체가 매력적이었던 시대는 가고 가벼운 이벤트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형식적 시도가 아닌 확고한 결과물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단 장인뿐 아니라 울지로의 특화된 기술인들과의 협업도 마찬가지고요.

**한지로 만든 표지 작품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저에겐 첫 작업이나 다름없는 오래된 친구 같죠. 처음엔 단순히 종이란 소재로 구조적이고 심미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조명의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이 서더군요. 지난 10년 동안 한지라는 소재나 형태적 변화도 거의 없어 오리지널리티가 지속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대표하는 작업으로 인식해주십니다. 학생 때 은사님이 제게 지금의 작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변화할지 알 수 없고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또한 모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그 말씀을 되새기게 만드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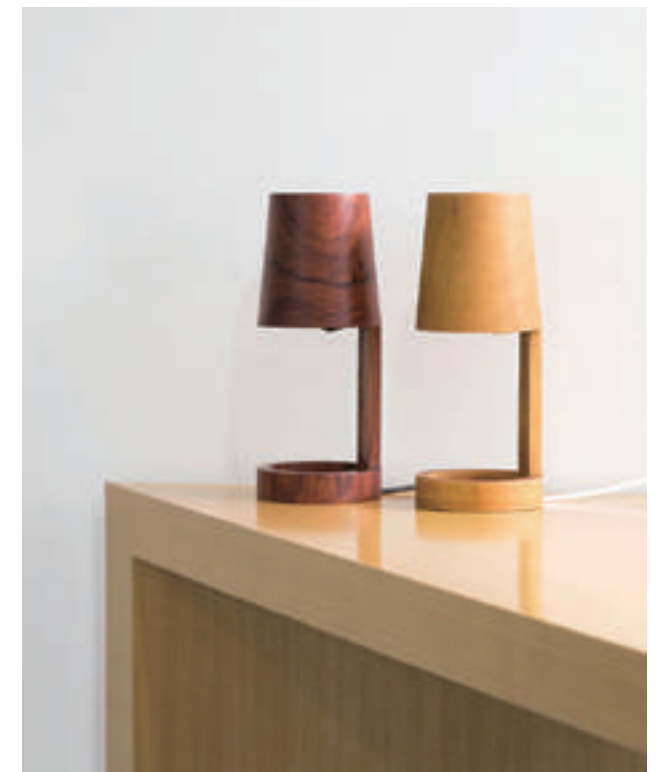
**밥공기, 국그릇, 수저 등의 목기에 옷칠해 만든 '반상'이란 조명 작업도 흥미롭더군요.** 2년 정도 옷칠을 배웠는데, 하루에 8시간씩 목기를 사포질하는 과정이 정말 고되었습니다. 한번은 공방에 제멋대로 쌓인 목기들에 시선이 갔는데, 사물이 말을 걸어오더군요. 국그릇과 수저의 형태에 변

**What kind of design are you pursuing based on your exploration of various materials?** I believe that the design is not necessarily functional or useful at certain points. Usefulness may not be its major purpose, but I need to create experimental designs. I am contemplating my identity or color as a designer, thinking about the length of time I have devoted as a designer. You could say that it is my identity as a Korean designer. That is why I am learning different techniques of traditional crafts whenever I have a chance.

**What are the outcomes of your contemplation?** Before, I deeply thought about expressing myself through the techniques of traditional crafts that I had learned and relating that to my identity. However, the collaboration of masters and contemporary designers itself is no longer attractive, and it is considered fleeting. For that reason, I am focusing on creating solid outcomes beyond formal attempts. This is also true for the collaboration with skilled specialists in the Eulji-ro area.

**Could you explain about the cover piece made with Korean paper?** It feels like an old buddy to me; as old as my first creation. At first, I simply thought about creating a structural and aesthetic shape by using paper, but I concluded that a form of lighting would be most suitable. Korean paper has not changed in terms of materials and form for the past decade, so I have maintained my originality. Now, many people think of it as my signature.

**The lighting piece called 'Bansang' with wooden bowls and silverware coated in lacquer was also interesting.** I learned lacquering for about 2 years, and it was really exhausting to sand wooden vessels for 8 hours a day. One day, a pile of wooden vessels at a corner of my studio caught my attention, and they started talking to me. I ended up thinking that I would be able to capture light by changing the shape of the bowls and the silverware. I went to



오동나무 표면을 인두로 지진 후 벚짚으로 닦아내 단단한 나뭇결을 만드는 낙동법으로 제작한 '낙동가구 시리즈'와 한지를 접어서 만든 '오리가미 시리즈' 등 다양한 기법과 소재를 연구하고 전통공예를 배우는 것은 한국 디자이너로서의 아이덴티티와 색깔을 찾아가기 위한 소동호 작가의 노력이다.



10년 전 작가로서 처음 선보인 '오리가미 시리즈'가 꾸준히 관심을 받으며 소동작 작가의 대표작으로 빛나고 있다. 더불어 옷칠을 배워 제작한 반상기 테이블 조명, 금속공예가 김윤진 작가와 협업한 '투릭스 시리즈' 등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화를 주면 빛을 담아낼 수도 있겠다 생각에 다다랐고, 남원에 가서 목기를 깎고, 장인의 옷칠을 입힌 다음 제가 형태의 구조를 풀어내서 스탠드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지로 다리를 만든 스톨도 눈길이 갑니다.** 종이라는 소재에 형태 변화를 주기 위해선 접거나 돌돌 마는 방법이 있겠다 싶어 시도한 것이 한지 스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섬유질이 질긴 한지를 밀도 있게 말아서 강성을 높여보았는데, 한지에 옷칠까지 더하니 사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더군요. 하긴 한지로 갑옷을 만들기도 했다잖습니까.

**이른바 뉴트로의 시대입니다. 작가님이 보는 한국의 전통 혹은 미학란 무엇인가요?** 흔히들 달항아리나 사방탁자를 연상하기 마련이죠. 물론 그것들

Namwon to carve wooden vessels and coated them with the lacquer of a master. Then I unraveled the shapes and turned them into a light stand. The entire process was a very impressive experience.

**The stool which legs are made of Korean paper is also unique** I just thought that I could fold or roll paper to change its shape. I rolled Korean paper with tough fiber very tightly to increase its rigidity, and added lacquering. Then it was able to bear the weight of people.

**The era of New-tro has come. For you, what does Korean traditions or aesthetics mean?** Many people would think of a moon shaped jar or an open shelf. They are certainly well-made designs and crafts,

이 잘 만들어진 디자인과 공예품인 건 맞지만 학습된 인식에 따른 고정관념이란 생각도 듭니다. 인젠가 베트남의 전통공예인들과 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란 측면에선 우리의 전통공예와 대동소이했죠. 달랐던 점이 있다면, 그들은 장인이란 자부심보다 생활에 더 가깝게 녹아들어 있던 거였습니다. 자부심도 좋은 가치이지만 단순히 우리 것을 강조하기보다 열린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10년 전 독립 디자이너로서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제 작업이 이슈화되는 시간이 더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지가 빨리 소비돼 저 자신이 소진되는 것이 싫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같습니다. 다소 느린 속도로 가더라도 디자이너이자 디렉터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S

but I also think that they are fixed concepts based on learning. I once collaborated with traditional craftsmen from Vietnam. They were technically as skillful as the traditional craftsmen from Korea. What made them different was that they were creating something closer to life without being attached to the pride of being masters.

**What are your plans for the future?** When I became an independent designer 10 years ago, I wanted to delay attracting attention and gaining popularity. I did not want my images to be consumed too quickly. I still think the same way. I want to consolidate my foundation as a designer and as a director even if it takes time.





자연과 예술이 일치하는 순간  
GIDANG ART MUSEUM

제주 기당 미술관

훌륭한 자연 풍광이 제주의 전부는 아니다. 곳곳에 있는 크고 작은 미술관은 이 아름다운 섬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사랑을 확인하게 한다. 그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가, 새삼 애뜻하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박혜숙





서귀포 예술의전당 안, 삼매봉 기슭에 폭 안기듯 자리한 기당미술관에서 제주의 정수를 담은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나보았다. 1987년 7월 1일 개관한 이곳은 국내 최초의 시립미술관으로, 제주가 고향인 재일교포 사업가 기당 강구범 선생이 지어 제주에 기증했다. 국내외 주요 화가들의 현대미술 작품을 폭넓게 소장하고 있어 회화, 조각, 공예, 판화, 서예 등 전 부문에 걸친 소장품 전시가 열린다.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을 지나면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소박한 건물이 드러난다. 나지막한 곡선을 그리는 지붕을 얹은 세 개의 원통형 건물이 미술관을 이룬다. 원형 무대처럼 꾸민 입구에는 이곳을 설립, 기증한 기당 강구범의 흉상이 보인다. 이곳의 건축 모티브는 '눌'이다. 눌이란 '가리'의 제주 사투리로,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장작을 둥글게 차곡차곡 쌓은 더미를 뜻한다. 즉 원통으로 보였던 건물 형태는 제주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형 벚길

I saw various artworks, cherishing the essence of Jeju, at Gidang Art Museum, which is nestled in the arms of Sammaebong within Seogwipo Arts Center. Established in July 1, 1987 as Korea's first public art center, it was built and donated by Sir Goo Bum Kang (Gidang), a Korean-Japanese entrepreneur and a Jeju native. It has a wide collection of contemporary artworks by major artists from Korea and abroad, exhibiting paintings, sculptures, crafts, prints, and calligraphy works. Passing by the small trail leading to the art museum, you will come across a humble building that is not easy to notice from the outside. Three cylindrical buildings with moderately-sloped, curved roofs make up the art museum. The entrance resembles a round stage with a bust of Sir Kang, who built the museum as a donation. The architectural motif of this place is 'Nul.' Nul is the Jeju dialect for

을 의미했던 것. 외벽은 검고 거친 질감의 제주의 돌을 쌓아 세웠고 적색 송이석이 깔린 지붕을 얹어 제주 특유의 멋을 살렸다. 지붕 정점에 있는 천창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전시관 내부를 환하게 비춘다. 지붕 아래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받치는 서까래가 특히 인상적이다. 둥근 천장에 달린 이 거대한 바퀴는, 자연과 예술이 이루는 끊임 없는 순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는 내부 공간을 휘감듯 흐르는 경사로서도 여실히 느껴진다. 기당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예술가 중 특이할 만한 사람은 우성우(宇城 斌)씨 화백이다. 설립자 강구범 선생의 외사촌 동생이기도 한 그는 '폭풍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거친 제주의 바람을 절묘하게 표현해냈다. 1931년 일본에 건너가 그림 공부를 한 그는 1957년 제주에 돌아왔다. 제주대학교 사범대에서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는 기당미술관이 문을 열 때 명예관장으로 활동했다. 변지상(裨止相)전시실

'Gari,' which means 'a bundle of grains or a pile of firewood.' Cylindrical buildings symbolize round rolls of hay that you can easily find in Jeju. The exterior walls are piled with rough, black rocks of Jeju, while the roofs are covered with red basalt, representing the beauty of Jeju. The natural light coming through the ceilings on the peak of the roofs brightens the exhibition hall. The rafters that aesthetically support the roofs are particularly impressive. These massive wheels beneath the round ceilings seem to be about the ceaseless circulation of nature and art. You can clearly see this flow along the slopes circling around the buildings. Among the many artists you can meet at Gidang Art Museum, Si Ji Byun (Wooseong) is the most recognizable. He is a cousin of Sir Kang, the founder, and he expresses the rough winds of Jeju so exquisitely that he has been nicknamed, 'the artist of storms.'



기당 미술관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성중로153번길 15  
 홈페이지 culture.seogwipo.go.kr/gidang/  
 관람 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 064-733-1586



도 그때부터 마련됐다. 그의 평생이 담긴, 황토색이 넘실대는 일련의 작품을 보고 있으니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외로워 보이는 남자와 말 한 마리가 이어가는 삶. 거기에는 바람에 휘청이는 나무 한 그루와 자그마한 초가집, 그리고 장대한 제주의 자연이 함께 한다. 전시실 한편에 꾸민 변시지 화백의 작업실은 그의 소탈한 성격이 한눈에 보인다. 그림 속 남자로 대표되는 예술가의 일상을 살며시 엿보는 기분이다.

이곳에서 보내는 삶은 어떠할까? 제주를 여행하면서 누구나 한번쯤 던지는 질문일 테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느릿느릿 걷고 자연을 누리 고 싶은 마음은 제주만 오면 늘 풍선처럼 부풀고 만다. 스스로 제주의 자연을 닮은, 그리고 제주의 자연을 치열하게 담아낸 예술가를 만났 던 기당미술관에서 방금 전 질문을 다시 곱씹어본다. 나에게 아름다운 것, 옹고 바른 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그 어디든 제주이 지 않을까? 그것이야말로 꼭 어려운 일이지만, S

He went to Japan in 1931 to study art, and returned to Jeju in 1957. He also taught art in College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served as an honorary curator when Gidang Art Museum first opened. Byun's permanent exhibition hall was then built. Artist Byun's studio at one corner of the exhibition hall reflects his humble mindset. You can witness the mundane life of an artist, as represented by the subject in his paintings.

What would it be like to spend your life here? Anyone would have asked this question while visiting Jeju. The idea of walking slowly and enjoying nature away from the busy life comes up in mind every time you visit Jeju. At Gidang Museum, you can meet an artist who depicts the nature of Jeju and strives to capture it. Wouldn't any place be like Jeju if you focus solely on what is beautiful to you, and what is just right for you? But even that is not so easy.

부드러운 제주의 자연에 숨어 있듯 둘러싸인 기당미술관은 혼자서도 더할 나위 없는 공간이다. 제주를 한없이 사랑했던 노화기의 작품들이 삶과 자연, 그리고 열정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섬세한 손길로 피워낸 고귀한 아름다움 Heighten the Wisdom and Beauty of Asia

지친 피부에 싱그러운 젊음을 선사하는 설화수의 설린 라인이 글로벌 론칭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화사하게 피어났다.  
자연을 품은 도시 싱가포르와 매화의 강인한 생명력을 품은 설린의 동행은 아름다움으로 채워진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서티스톡







### 생기 넘치는 도시에서 고결하게 피어난 설화수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 국가지만 그 속을 채운 저력과 매력은 결코 작지 않다. 아시아의 금융, 물류, 교통의 중심지로 탄탄한 경제력을 갖추고, 아름답고 싱그러운 초록빛 풍광은 여유로운 일상을 선사한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싱가포르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이주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문화를 꽃피우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인 조화와 균형과도 닮은 싱가포르는 그래서인지 설화수와 인연이 깊다. 2012년 9월 탕스 오차드 (Tangs Orchard)에 첫 번째 설화수 매장이 열리면서 아시아의 지혜를 품은 설화수의 효능에 감탄, 싱가포르 여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7월에는 싱가포르 중심지인 캐피톨 싱가포르에 아시아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이는 설화수 100번째 글로벌 매장이자 그 인연이 더욱 귀하다.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 총 9개의 설화수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곳에서 설화수가 최고의 뷰티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방의 아름다움과 효능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다는 명징한 증거라 하겠다.

싱가포르 역사와 경제의 랜드마크인 캐피톨 싱가포르에 위치한 100번째 글로벌 매장이자 아시아 최초의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2015년 7월에 문을 열어 격이 다른 한방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이곳은 싱가포르 전통 건물 형태를 고려해 곡선 위주의 우아한 디자인과 황동 장식으로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적용했다.

### Sulwhasoo, blooming with purity in a city full of vibes

Singapore is the center of finance, logistics, and traffic in Asia, while its fresh and green scenery reflects a pleasant everyday lifestyle. The population consists of various races from China, Malaysia, and India who have immigrated to Singapore throughout the flow of history. Together, the people have bloomed as the flower of cultural diversity living in harmony. For that reason, Singapore has harmony and balance,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philosophy of Sulwhasoo. In September 2012, the first Sulwhasoo store opened at Tangs Orchard, and became the beauty brand most beloved by Singaporean women. In July 2015, Sulwhasoo's first flagship store in Asia opened at Capitol Singapore in the heart of Singapore. I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because it is also the 100th global store of Sulwhasoo. The fact that there are nine Sulwhasoo stores throughout Singapore despite being a small city-state is clear proof that Sulwhasoo has been acknowledged as the best beauty brand there, and that the beauty and efficacies of Korean herbal medicine are globally acclai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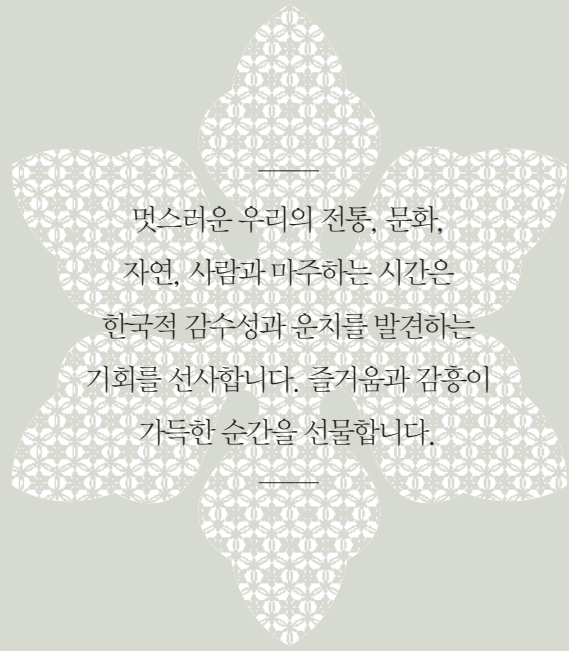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매화처럼 싱가포르에서 꽃 피운 설린

지난 2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봄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매화의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를 통해 피부 피로를 해소하고 노화의 사전 징후를 예방하는 설린 라인을 해외 고객에게 처음 소개하는 자리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것이다. 설화수의 브랜드 뮤즈 송혜교를 비롯해 100여 개의 주요 미디어와 각국의 디지털 인플루언서 등의 VIP들이 참석해 설린의 글로벌 론칭을 축하했다. 설린의 귀한 원료인 매화와 설화수의 기술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모델 송혜교의 무대 인사 이후 설린 제품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해외 미디어들의 열띤 관심과 질문이 이어져 설화수와 설린에 대한 높은 기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장에는 참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설린 VR, 제품 체험, 퀴즈 게임, 실험 존 등 설린이 품은 아름다운 가치와 고귀한 효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워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매화처럼 설린의 강력한 항산화 효능과 설화수의 홀리스틱 뷰티 철학이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빛났다. 싱가포르는 물론 해외 고객들에게 아름다운 결실로 맺힐 설린의 첫 꽃망울은 화사하고 그윽하게 피어났다. S

Bloomstay Vitalizing Line, blooming in Singapore like plum blossoms

A message welcoming the spring was delivered in Singapore last February 21. Bloomstay Vitalizing Line, to relieve skin exhaustion and prevent the signs of premature aging with the powerful antioxidants of plum blossoms, was first introduced to global customers in Singapore. The muse of Sulwhasoo, Song Hye-kyo, the most sought-after VIPs including digital influencers from around the world, and about 100 major press representatives were invited to the event for the global launch of Bloomstay Vitalizing Line. The press representatives were highly interested and curious about the brand, and kept on asking questions about Sulwhasoo and Bloomstay Vitalizing Line. Bloomstay Vitalizing Line's powerful antioxidants and Sulwhasoo's principles of Holistic Beauty shined as brightly as the plum blossoms that bloom in the snow, becoming the very first messenger of spring. The first flower bud of Bloomstay Vitalizing Line has opened so radiantly and fragrantly, reaching out to the customers in Singapore and around the world.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미  
다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강하다  
Endlessly weak and endlessly strong

# Hong Jee Hui

화 가 홍 지 희

홍지희는 유리를 사랑한다. 이들의 손을 잡고 산책하던 날 밤 삶의 소음으로 소란스러운 거리 한복판에 소주병이  
와장창 깨져 있었다. 아, 한없이 약한 존재 유리에 한탄하고 있는데 아이가 외쳤다. "엄마 보석처럼 빛나는 바다  
같아." 가로등 아래 초라하게 부서져 있던 유리조각은 아이의 한마디로 에메랄드가 됐다. 그날 밤부터였다.

홍지희가 유리를, 유리처럼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강한 예술을, 여자를, 일상을 사랑하게 된 것은.

글 이재영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단번에’ 된 일은 없었다. 그러나 ‘기필코’ 그리 됐다. 학창시절 흥지희는 말없는 아이였다. 그림을 좋아했지만 수줍어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보여주지 않았으니 아무도 몰랐다.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면서도 누군가 그걸 본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밀려왔으니까. 국문학과에 합격해 등록금을 내고서야 정신이 번쩍 났다. 이대로라면 분명 행복하지 않을 거야. 재수를 거쳐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 졸업 후 직장인이 됐다. 웹 회사의 디자이너는 분명 매력적인 직업이지만 그녀에게 맞지 않았다. 자기 안의 것을 드러낼 수 없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 표현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지 않았다. 주말마다 화실에 나가 그림을 그렸지만 갈증은 여전했다.

“회사 생활은 잘했어요. 전공을 살려서 선택한 직업이었고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주말에 화실에 나가 그림을 그리면서 깊이 고민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으로 마음속의 것들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말보다 그림을 좋아했죠. 그러니까 그림이 저의 언어였던 거예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제 언어를 찾기 위해서였죠.”

회화를 공부하며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됐다.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깨닫게 됐다. 그사이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됐는데 육아의 고단함도 그림으로 씻어낼 수 있었다.

“밤을 새서 나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했어요. 작업실을 열고 나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첫 전시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이미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Nothing happens ‘at once.’ But it all happened, ‘no matter what’ it is. Back in school, Jee Hui Hong was a quiet child. She loved to draw, but she was too shy to show her drawings to anyone. So no one knew about it. She drew every day, but the thought of showing it to someone else kept her shy. It barely occurred to her after she entered into the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and even paid her tuition. “I would never be happy this way.” She studied for another year, majoring in Graphic Design in college. After graduation, she found a job as a designer in a web agency. It was an attractive job, but she deemed it was not for her. She could not express herself completely. She had to focus on her clients’ needs, so she did not find it fulfilling. She went to a studio every weekend, but her thirst for self-expression lingered.

“I did well on the job. I chose that job because that was what I had majored in, and I chose to do it. But something was missing. I went to a studio every weekend, and thought deeply about it. Then I realized that I have always used drawing to express my feelings. I was extremely introverted, so I liked to draw rather than to talk about it. So, drawing became my language. Eventually, I quit and went back to school in search of my expression.”

I confronted my true self while learning painting. I finally knew for sure what it is that I truly wanted. In the meantime, I got married, and became a mother. I was able to wipe away the weariness of child-rearing by painting.

“I communicated with the world overnight through my language. I opened my own studio to draw for myself. I started to bring out the images hidden inside me for my first exhibition.”



## 소통하는 아티스트

그녀는 SNS를 통해 자신의 예술을 나눈다. 매우 활발히 자신의 것들을 공개하고 알린다. 진솔하고 편안하게 예술가의 예술과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안으로 안으로 천착하는 예술가들과 조금 다른 행보다. 흥지희도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도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데 이유가 있다.

“그림에 대한, 예술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갈급함을 잘 알아요. 제가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위의 예술이 친절하진 않잖아요. 갤러리에 들어가는 것도 어쩐지 조심스럽고요. 저도 그랬어요. 늘 주눅 들어 있었죠. 예술을 하면서 보니 어느 누구도 예술 앞에 초라해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고귀한 건 예술이 아니라 그걸 보려고 노력하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해요.”

그녀는 작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스킬 대부분을 스스로 해결했다.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익혔다. 분투하며 얻었지만 그래서 진짜 자신의 것으로 남길 수 있었다. 깨진 유리를 그러모아 온 이후 ‘탄생석 시리즈’를 선보이기까지 일 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유리 조각을 캔버스에 붙이기 위해, 그 전체를 보석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소재와 재료를 연구했다. 실패가 거듭됐지만 결국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냈다.

“아틀리에 학생들이 물어보면 무엇이든 다 알려줘요. 저는 다시 찾아내면 되니까요. 뽀뽀 숨기고 있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나누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기대어 행복하면

### An interacting artist

She shares her art through SNS. She is quite open, and expresses her ideas very actively. She posts about her art and her life as an artist very honestly and comfortably. This makes her rather different from other artists who try to hide behind their works. She focuses on her inner self. But there is a reason why she openly communicates with the public.

“I know how thirsty the people are toward the beauty of art. I have experienced the same as well. But the art around us is not so friendly. You may hesitate before going to a gallery. I did just like that. I was always intimidated. As an artist, however, there was no reason to be embarrassed in front of art. I wanted to let people know that anyone can enjoy art.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what is sublime is the effort you make to see art, not the art itself.

She taught herself most of the skills she needed to become an artist. She traveled everywhere to satisfy her curiosity and learn new things. She studied the materials, gluing the glass pieces on the canvas and making the entire pieces look like jewels.

“I share everything with my students in my atelier. I can always find something else. I don't think hiding is a way of keeping something. I want to share mine. I want more people to find happiness in art. I want them to look into their true selves, and find their own expressions like I did.”

This idea makes her atelier a pleasant place for anyone, from a seven-year-old child to a





좋겠어요. 진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저처럼 자신의 언어를 만났으면 해요.”

이런 그녀의 생각이 반영된 홍지희의 아틀리에에는 일곱 살 아이부터 중년의 어른까지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다. 구체적인 목표나 잘해야 한다는 강요나 압박 없이 즐겁게 그림을 접하고 배운다. 힘든 시기에 후배 작업실에서 느꼈던 편안하고 좋은 기운처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어 클래스를 열었고 그림을 매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세상의 다양한 면을 경험한다.

**느리지만 정확하게**

1일 1드로잉을 실천하고, 10년째 요가를 하고, 매일 글을 쓴다는 홍지희 작가.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나아갈 것 같은데 그녀의 이들을 엄마를 민달팽이라고 부른다.

“저는 정말 느린 사람이에요. 목표 없어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천천히 대신 꾸준하게 하려고 해요. 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은 정확한 사람이란 걸 알았어요. 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빨리 치고 나가진 못하지만 결국 옳은 방향으로 갈 거라는 믿음이요.”

목표는 없지만 원하는 방향은 있다. 낮은 예술가가 되는 것. 끊임없이 생각하고 보완하고 배우고 도전하며 겸손하게 다가가는 사람. 소외된 것에 시선을 멈출 줄 알고 약한 것에서 강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내면과 외양이 다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사람. 그녀가 사랑하는 소재인 유리처럼 발아래 부서져도 빛나는, 부서지며 반짝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S

middle-aged grown-up. Anyone can enjoy learning art with no pressure about achieving a goal or doing well. She introduced classes to share positive energy with other people, just as she had felt comfortable and been inspired in her colleague's atelier during times of hardships.

**Slowly yet precisely**

Artist Hong has completed one drawing a day, done yoga every day, and written one piece a day for 10 years. She seems to be hard at work toward her goal, but her son calls her a snail.

“I am really slow. I have no goal. I just try to be constant, although slow, in search of what I have to do and what I want to do. This is what I have realized in life. I am slow, but I know exactly where I want to go. I have trust in myself. I cannot stay ahead of others, but I will be in the right direction in the end.”

She does not have a goal, but she knows her direction: to be a humble artist, to be someone who does not stop thinking, improving, learning, and challenging, to be someone who can pay attention to the isolated and discover strengths in something weak, to be someone who pursues the true beauty of balance with no contradiction, and to be someone who continues to shine even if she breaks down like her favorite glass materials.

메이크업 조원경(플로에) 헤어 희린(플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어헤이트 for 하고(1670-3212) 에스카다·에스카다 빈티지 가운(02-3444-1730), 테무(02-568-1541), cera bonito(070-8289-1989)



## 사유와 명상이 있는 여백의 공간

소란한 일상을 내려놓고 온전한 '쉼'을 누리는 것이 절실한 요즘이다. 이런 태도는 건강한 몸은 물론이고 내적 충만까지 이루기 위해 '명상'과 '차', '운동' 등에 대한 관심도 이르고 있다. 마음속 넉넉한 여백의 공간을 즐겼던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 내면의 휴식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공간 연출을 소개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1 옷칠 팔각 소반 세트는 유남권 작가. 2 달항아리 형태의 미색 화병은 에뜨클레이 스튜디오. 3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의미를 담은 5m 길이의 직조 작품은 정영순 작가. 4 꽃잎을 모티브로 실크와 마직을 직조한 '화양연화' 펜던트는 김민수 작가 x Still Life by 캔터원. 5 섬유 조각들을 스티치와 물감으로 덧칠해 작업한 'A sense of Place'는 전재은 작가. 6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데이베드는 보쿠즈. 7 파스텔 톤의 패턴이 그려진 블랭킷은 Slowdown Studio 제품으로 룸퍼먼트. 8 직접 드로잉한 패턴을 적용한 컬러 블로킹 러그와 컬러 패치워크로 포인트를 준 쿠션은 서운정회사. 9 푸른빛과 매트한 베이지색의 'Take your time series' 화병은 임경아 작가. \*베이지색 가벽의 페인트는 'DE6213', 하늘색은 'DE5772', 핑크색은 'DE6052'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 향기와 빛이 머무는 자리

계절마다 피는 꽃과 풀의 향기 아침의 상쾌한 공기와 금방 내린 커피의 향기 등 좋은 기운과 기억을 전해주는 향기는 절로 눈을 감고 순간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한다. 따스하고 투명한 빛과 싱그러운 식물도 편안한 위안을 준다. 향과 캔들, 모빌 등의 작은 아이템을 통해 얻은 아늑하고 신비로운 영감으로 자친 마음은 금세 맑아진다.



**왼쪽 페이지** 1 기하학무늬 조각에 칠보 작업으로 완성한 '봄날' 모빌은 윤주연 작가. 2 그린 컬러 글라스는 VEB Harzkristall by 롬퍼멘트. 3 노란색 유리 굽접시는 클리어비. 4 원뿔 모양의 초는 허니플라밍고. 5 유리 조각 형태의 컬러 향꽂이는 스튜디오 오유. 6 베이지색 원뿔 향꽂이는 'Take your time series'로 임경아 작가. 7 투명한 원형 유리 향꽂이는 양유완 작가. 8 앰버 컬러 화병은 INGRID Glass by 롬퍼멘트. 9 매트한 질감의 연보라색 유리 화병은 클리어비. 10 프랑스 남부지방 리옹을 여행하며 본 건축물에서 받은 영감으로 제작한 캔들은 허니플라밍고.

**오른쪽 페이지** 1 나뭇결이 살아있는 롬 디바이더는 모네프. 2 나무 소재의 검정 합은 김전욱 작가 by 롬퍼멘트. 3 자연스러운 나무 고유의 결이 편안함을 주는 우드 화병은 물건연구소 by 이엘. 4 3가지 높이와 컬러, 소재로 제작한 앵글 사이드 테이블은 플라스텐. 5 굽 형태의 브라운 불은 에뜨클레이 스튜디오. 6 핑크색 유리 불은 스튜디오 오유. 7 타원형의 도자기 오브제는 신광섭 작가. 8 병풍을 모티브로 산 능선의 아름다움을 한지로 표현한 '화이트 스크린 램프'는 권중모 작가.





**왼쪽 페이지** 1 블랙 원형 테이블은 BÜRO PAPIER, 2 타원형 나무 트레이는 BÜRO PAPIER, 3 인체의 곡선을 표현한 오브제 캔들은 Lightipsy, 4 자수를 놓은 패브릭 화병 오브제 '백색화완'은 최은정 작가 by LDKB studio, 5 사인배 모양의 캔들은 얼그레이 by 포인트오브류, 6 꽃 모양 옷칠 불과 미니 꽃 오브제, 노란색 옷칠 트레이는 모두 박수이 작가, 7 옥색 미니 화병은 정담은도자기, 8 복숭아색 다관과 찻잔은 이창수 작가 by BÜRO PAPIER, 9 연회색 도자기 속우는 정지원 작가, 10 실과 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 만든 모빌 'sunset seires #4'은 파이브콤마, 11 민화를 프랑스 자수로 재해석한 책기도 죽지는 최은정 작가 LDKB studio.

**오른쪽 페이지** 1 어두운 색감의 빈티지 화기와 고려시대 토기는 모두 오르에리카이브, 2 백자 달항아리는 모두 토화도예, 3 19세기 초의 간결한 가구 형태를 모티브로 최고급 호두나무와 이탈리아 소가죽으로 장식한 우드 스피커는 한성재 작가 by AnalogiZm, 4 블랙 촉대와 베이지색 미니 화병은 모두 'Take your time series' 로 임경아 작가, 5 달항아리 액자 작품 'Karma'는 최영욱 작가 by Jj중정갤러리.



## 진정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누리다

육체적인 휴식을 넘어 고단한 정신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치유가 필요하다. 표류하는 감정들을 비우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명상과 향기로운 차를 차분히 음미하는 잠깐의 시간은 영혼을 성장시킨다. 푸르고 고운 색으로 담담한 안정감을 주고 간결하게 꾸미는 정도로도 충분히 정신적 공간적 여백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음악과 함께 고요한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스피커를 주인공으로 달항아리와 어우러진 꾸밈도 편안한 위안을 선사한다.





## 가장 귀하고 진실된 선물은 자연이다

장대한 덕유산과 비경의 구천동 계곡을 품은 무주에 위치한 독채 펜션 '서림연가'를 찾았다. 건축 안에 무주의 자연을 품어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이곳에서 설화수가 준비한 감사의 선물을 소개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노경(건축), 이종근(제품) 도움 주신 곳 서림연가

자연에 둘러싸여 여유자적 시간을 보내는 휴식이 가장 갖고 싶은 선물인 요즘이다. 무주 구천동 계곡을 옆에 끼고, 덕유산이 둘러쳐진 '서림연가'는 자연과 함께하는 귀한 휴식을 선사하기 위해 애쓰고 애쓰는 곳이다. 건축가는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풍광에 건축물이 방해되지 않도록 애쓰고, 중정에서 고운 산세와 시원한 물소리를 가만히 즐길 수 있는 곳이길 바랐다. 서림연가의 조경은 물과 돌, 나무와 꽃이 정갈하게 어우러지고, 햇볕과 비람, 눈과 비가 더해져 사계절 다른 풍경을 그려낸다. 머물기만 해도 온전히 자연에 묻혀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찬 마음을 비워낼 수 있는 곳, 서림연가에서 비운 만큼 삶은 다시 사랑스럽게 채워진다.







깊은 보습을 누리다, 자음 2종 보은세트

전통은 현대와 함께 공존할 때 가치 있는 아름다움으로 완성된다. 설화수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전통 문양 컬렉션'을 선보여 왔다. 2019년은 신비하고 고귀한 자연 풍경을 표현한 전통의 자연산수문을 현대적 감성으로 표현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문양을 새긴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 자음수와 자음유액이 구성된 자음 2종 세트는 충만한 보습을 선사해 촉촉하고 부드러운 감동을 전한다.  
 자음수 125ml, 자음유액 125ml 12만원(자음수, 자음유액, 윤조에센스, 윤조마스크, 자음생크림 견본 포함)



인삼이 선물하는 젊음, 자음생 안티에이징 2종 보은세트

자연산수문은 장수를 상징하는 바위, 위엄과 신비를 상징하는 구름,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산 등 자연의 풍경을 그린 한국의 문양이다. 설화수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자연산수문은 기하학적 무늬와 현대적인 색감으로 표현해 고귀하고 특별한 선물로 탄생했다. 귀한 인삼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담은 자음생크림과 자음생에센스로 구성된 세트는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해 한층 젊어진 피부를 선물한다. 자음생크림 60ml, 자음생에센스 30ml 30만원(자음생수, 자음생유액, 자음생마스크 견본 포함)  
 산과 기암을 모티브로 제작된 도자 오브제와 흰모래 접시는 모두 김현식 작가. 우드 받침과 돌 모양 비누는 아델



## 맛과 멋, 추억을 싸다

우리가 '도시락을 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유연하고 여유로운 의미를 품은 보자기에 음식을 싼 데서 유래했다. 정성 그득한 맛과 멋스러운 공예 도시락, 고운 보자기가 어우러진 봄날의 나들이 도시락에는 맛있는 추억이 싸여 있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요리&스타일링 김보선(로썸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전윤정

**왼쪽 페이지** 동그란 조각을 이어 만든 조각보 '여의주문보'는 정은진 작가, 푸른색 보자기와 하얀 모시 보자기는 모두 호호당, 갈색과 진한 초록색의 2단 숯털 옷칠 도시락은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오른쪽 페이지** 하늘색 누비 솜 보자기는 호호당, 모란 꽃 모양의 백자 도시락은 이능호 작가, 백자 수저받침은 이기조 작가, 정사각의 동 도시락은 박상철 작가 모두 by 조은숙갤러리.

## 싸 먹는 재미가 쏠쏠한 셀프 미니 김밥



### 재료

밥 2공기,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작은술, 김밥용 김 2장, 볶음 김치·달걀 지단·소금 적당량씩 (불고기 볶음) 소불고기 200g, 간장 3큰술, 청주·참기름 2큰술씩, 양파즙·설탕 1큰술씩, 다진 마늘 1작은술, 후춧가루 약간 (멸치볶음) 잔멸치 1컵, 다진 견과류 1/3컵, 청양고추 1개, 다진 대파·설탕 1큰술씩, 다진 마늘 1작은술, 간장·맛술·물엿 1큰술씩, 후춧가루 약간 (시금치나물) 시금치 100g, 참기름 2큰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참깨·소금 약간씩

### 만드는 법

1 분량의 불고기 볶음 재료를 불에 넣어 20분간 재운 뒤 프라이팬에 볶는다. 2 달걀 팬에 간장과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맛술, 물엿, 설탕, 후춧가루를 넣고 바글바글 끓인 뒤 마른 팬에서 볶아둔 잔멸치와 견과류, 송송 썬 청양고추를 넣고 볶는다. 3 끓는 물에 손질한 시금치를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짰 다음 양념 재료를 넣어 무친다. 4 볼에 따뜻한 밥과 참기름, 깨소금, 소금을 넣어 간을 한 뒤 도시락 용기에 ①, ②, ③과 볶은 김치, 달걀 지단을 적당량 담고, 4등분한 김을 포함해 도시락을 싸들.



쫄깃하고 촉촉한  
증편 새우 샌드위치



**재료**

증편떡 300g, 새우 7마리, 오이·빨강·노랑 파프리카 1/3개씩, 로메인 4장 (젓소스) 잣 1/4컵, 레몬즙·식초 2큰술씩, 간장·설탕 4작은술씩, 연겨자 2/3큰술, 다진 마늘 1/2작은술

**만드는 방법**

1 새우는 머리와 껍질, 내장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데쳐 한 김 식으면 반으로 가른다. 2 오이는 반으로 갈라 어슷하게 썰고, 파프리카도 오이와 비슷한 크기로 썬다. 3 믹서에 분량의 젓소스 재료들을 넣고 곱게 간 뒤 불에 새우와 오이, 파프리카와 함께 넣고 버무린다. 4 증편은 1cm 두께로 넓게 썬 다음 증편, 잎채소, ③, 증편 순서로 올린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도시락에 담는다.

간편하고 푸짐한

제육 파리고추 꼬치 도시락

**재료**

잡곡밥 1공기, 잎채소·애호박 나물·단호박 샐러드·메추리알 조림 등 밑반찬 적당량씩 (제육 파리고추 꼬치) 돼지고기 앞다리살 200g, 파리고추 9개, 고추장 2큰술, 간장·청주·설탕 1큰술씩, 다진 마늘 1/2작은술, 소금·후춧가루·포도씨유 약간씩

**만드는 방법**

1 돼지고기는 한 입 크기로 썰고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한다. 2 파리고추는 한 입 크기로 썬다. 3 불에 ①의 돼지고기와 고추장, 간장, 청주, 설탕, 다진 마늘을 넣고 버무린 뒤 20분간 재운다. 4 꼬치에 ③과 파리고추를 번갈아 끼운 뒤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꼬치를 얹어 중간 불에서 굽는다. 5 도시락 용기에 꼬치구이와 잎채소를 담고, 밑반찬과 잡곡밥을 담아 도시락을 완성한다.



**왼쪽 페이지** 하얀 모시 보자기는 호호당, 청색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진사 도자기 원형 찬함은 김규태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푸경에 독특한 식물 패턴이 그려진 사각 도시락은 여비진  
**오른쪽 페이지** 누비꽃 매트는 모두 보량, 나전 장식과 푸른색 옷칠의 나무 원형 합, 살구색 옷칠 푸경의 나무 원형 합은 모두 여비진



가볍고 건강하고 맛있는  
연어 다시마 말리와 장조림 주먹밥

**재료**

장조림 55g, 장조림 국물 3큰술, 밥 1공기, 달걀말이 (연어 다시마 말리) 씬 다시마 100g, 훈제연어 65g, 오이 1/2개, 빨강·노랑 파프리카 1/3개씩, 당근 1/3개, 적채 1/8개, 상추 6장 (연겨자장) 연겨자 2큰술, 간장·레몬즙 3큰술씩, 설탕·식초 1큰술씩, 장조림 55g, 장조림 국물 3큰술, 밥 1공기

**만드는 방법**

1 씬 다시마는 20cm 길이로 썰고 오이와 파프리카, 당근, 적채는 가늘게 채 썬다. 2 도마 위에 씬 다시마의 끝 부분을 조금씩 겹쳐서 김밥 김처럼 정사각형 모양을 만든 뒤 상추를 3장 깔고, 훈제연어와 채 썬 채소들을 길게 올려 김밥 싸듯이 돌돌 말아 한 입 크기로 썬다. 3 장조림은 가늘게 찢어 따뜻한 밥에 국물과 함께 넣고 고루 섞은 뒤 한 입 크기로 빚는다. 4 도시락에 연어 다시마 말리와 장조림 주먹밥, 달걀말이를 함께 담아 완성한다.

**왼쪽 페이지** 동그란 조각을 이어 만든 조각보 '여의주문보'는 정은진 작가, 카키색 리본이 달린 바닐라색 누비 솜 보자기는 호호당, 밴드 도자기 도시락과 시각 도자기 도시락은 모두 최홍선 작가 by 조은숙캘러리, 나전 장식의 옷칠 수저는 여비진  
**오른쪽 페이지** 누비 꽃잎 매트는 모두 보량, 보라색과 청색 뚜껑의 옷칠 도시락은 모두 여비진

짭조름하게 입맛 돋우는  
닭날개 간장구이와 케일 쌈밥



**재료**

밥 1공기, 케일 6장, 오이·파프리카 등 채소 스틱, 고추지무침 약간 (들깨 두부 쌈장) 두부 1/3모, 된장·들깨가루 3큰술씩, 고추장·들기름 1큰술씩, 다진 마늘·설탕 1작은술씩 (닭날개 간장구이) 닭 날개 8개, 다진 마늘 1/2작은술, 간장·청주 2큰술씩, 설탕 1큰술, 포도씨유·소금·참깨 약간씩

**만드는 방법**

1 두부는 으갠 다음 면보에 짜서 물기를 제거하고 달군 팬에 넣고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설탕을 넣어 볶는다. 마지막에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넣고 섞어 들깨 두부 쌈장을 만든다. 2 닭날개에 소금을 뿌려 밑간한 뒤,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과 함께 넣고 노릇하게 굽는다. 3 @가 거의 익으면 간장, 청주, 설탕을 섞어둔 양념을 붓고 강한 불에서 조리듯 구운 뒤 참깨를 뿌린다. 4 밥은 한 입 크기로 둥글게 빚은 뒤 데친 케일에 들깨 두부 쌈장을 손톱만큼 더해 싸서 쌈밥을 만든다. 5 도시락 용기에 케일 쌈밥과 닭날개 간장구이, 고추지무침과 채소 스틱을 곁들여 도시락을 완성한다.





## 물 위로 흐르는 아득한 인생

### Amsterdam & Wuzhen

암스테르담 & 우진

바람에 칠랑이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생의 지척에 있는 곳들이 있다. 운하 도시가 그렇다. 물 위에 집을 짓고 그 곁에서 거의 모든 순간을 보내는 생활. 그렇게 오래 지속되어 이루어진 삶의 형태는 아름다운 풍광에 녹아 더욱 특별한 공간을, 그리고 역사를 만들고 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셔터스톡





네덜란드의 수도이자 최대 규모의 도시인 암스테르담은 베네치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운하 도시다. 12세기 암스텔강 하구에 둑을 쌓아 만들어진 이 도시는 17세기 황금시대에는 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를 설립하고 아시아 무역을 독점하면서 북미와 아프리카, 인도, 브라질 등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네덜란드의 문화와 경제의 심장부로 성장했다.

40여 개의 운하와 500개의 다리 그리고 시가지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암스테르담. 아름다운 운하를 따라 걷다 마주치는 수많은 작은 골목은 언제나 낭만적이지만, 자칫 길을 잃기 십상이다. 공간 구석구석까지 깃든 진한 예술의 향취가 이성의 걸음을 세우고 감성의 손을 잡아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참에 메말랐던 감성에 흠뻑 물을 주는 게 어떨까? 자전거를 빌려 타고 도시 동남쪽에 있는 렘브란트의 집과 고흐박물관, 국립미술관과 시립미술관을 차례로 순례하는, 지극히 예술적인 여정을 계획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100킬로미터의 운하는 여행자에게 효율적이면서 색다른 지름길이기도 하다. 사방으로 뻗은 운하의 뱃길을 따라 달리는 유람선 위에 서면, 시간의 깊이가 아로새겨진 독특한 양식의 건축물과 아기자기한 암스테르담 도시의 주택가, 수상가옥 등이 한눈에 보인다. 암스테르담의 크루즈로는 카날 버스(Canal Bus)가 가장 대중적이다. 중앙역과 라이체 광장, 안네 프랭크 하우스에 선착장이 있고 3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다. 살랑거리는 바람을 맞으며 암스테르담의 가로지르면, 말로만 들었던 그 옛날 황금시대의 공기가 코끝에 스친다.

Amsterdam, the Netherlands' capital and the largest city, is also known for its great canals, just like Venice. The city was created by building an embankment at the mouth of Amstel River in the 12<sup>th</sup> century. During its golden age in the 17<sup>th</sup> century, the Netherlands established the East India Company, and dominated trading with Asia by building a global network connecting to North America, Africa, India, and even Brazil, and served as the cultural and financial heart of the Netherlands.

Amsterdam consists of about 40 canals, 500 bridges, and towns. The countless alleyways you see while walking along the beautiful canals seem always romantic, but you can easily get lost. The rich scent of art at every corner makes you stop in your tracks and entice your sensibility. How about taking this chance to soak your dry sensibility thoroughly? You could even plan an extremely artistic journey by renting a bicycle and touring around Rembrandt House Museum, Van Gogh Museum, the National Museum of Art, and the Municipal Museum of Art at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city. The 100 km-long canal, a World Heritage, is an efficient and unique shortcut for tourists. Stand on one of the ferries sailing along the canals in every direction, and you can enjoy the unique styles of architecture through the depth of time, the fairytale-like houses of Amsterdam, and floating houses. The most popular cruise in Amsterdam is Canal Bus. There are stops at Amsterdam Centraal, Leidseplein, and Anne Frank House, and there are three other routes. Go across Amsterdam in the cool breeze and the air of the golden age will tickle your nose.

운하와 풍차, 톨립으로 상징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전거를 타고 누비는 골목 구석구석 반고흐와 렘브란트의 색채가 반짝인다. 숨겨진 공예품, 신선한 식재료로 오감이 즐겁다.





물안개가 낀 어슴푸레한 아침. 푸르른 하늘과 강물이 같은 빛을 띠는 낮. 등불이 달처럼 떠오르는 저녁. 시간이 멈춘 듯 신비로운 우전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얼굴을 바꾼다.

중국 상하이 근교에는 수많은 수향水郷마을이 있다. 수향마을은 말 그대로 물가에 형성된 마을을 말한다. 7세기 초 수나라 양제 때 시작되어 당, 원, 명, 청대까지 이어진 대운하 건설 사업으로 무려 1,794킬로미터에 달하는 물길이 트였다. 이 운하로 산업이 크게 발전했는데, 특히 베이징에서 항저우로 연결되는 경항 대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고대 운하이자 강남과 화북 지역을 잇는 대동맥 역할을 한다. 이 운하 주변에 자연스럽게 여러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를 수향마을이라 한다.

우전烏鎮마을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수향마을 중에서도 그 아름다움으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검은 염료를 칠한 목조 건물 때문에 '새까만 까마귀'란 뜻의 이름을 얻은 우전의 풍광은 천 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을 오롯이 담고 있다. 상하이나 항저우 같은 현대적인 대도시와 멀지 않음에도 고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고고하게 유지하고 있어, 마치 시간을 초월한 별세계에 도착한 기분이다.

우전은 크게 동책과 서책, 남책과 북책으로 나뉘는데 동책과 서책 단지는 관광지로 개방되어 있다. 동책은 그림자 극장이며 염색공장, 삼백주 양조장 등 역사 깊은 명소가 모여 있어 수향마을의 박물관이라 할 만하다. 한편 서책은 오래 공들인 정비로 위생과 치안이 뛰어나며, 고풍스러운 우전의 정취도 한껏 느낄 수 있다. 잔잔히 흐르는 수로를 따라 72개의 돌다리로 연결된 마을을 돌아보면 어느새 어둠이 나지막이 가라앉는다.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객잔의 홍등 불빛이 하나둘 떠오르는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아득한 시절을 이어온 아름다운 밤, 비로소 우전의 진면목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S

There are many waterfront villages around Shanghai, China. The Grand Canal Project that began during the reign of Yang Guang in the early 7<sup>th</sup> century, and continued through the Tang, Yuan, Ming, and Qing dynasties opened up a waterway that spans 1,794 km. The canal reached out to many corners of the Chinese continent, and developed industries in many ways. The Grand Canal from Beijing to Hangzhou is the longest ancient canal in the world, and connects the south of the river to Northern China. People settled in many villages, which are called waterfront villages, along this canal. Wuzhen Village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waterfront villages that still exist today. Its name means 'a black crow' because the wooden buildings are painted in black, and its view reflects the history of over a thousand years. It is not very far from contemporary metropolises, such as Shanghai and Hangzhou, but it still cherishes ancient glories and beauties. Here, you would feel as if you have traveled through time in search of another realm.

Wuzhen is largely divided into east (Dongzha) and west (Xizha), and south (Nanzha) and north (Beizha). The east and west districts are open to tourists. The north district has many historical landmarks, such as the shadow theater, the dye factory, and the Sanbaijiu brewery, so it is the museum of the village. The west district is very clean and safe after the completion of maintenance projects, and you can sense the historical sentiments of Wuzhen.



## 영롱하고 찬란하게 스스로 빛나라

누구나 반짝이던 젊음을 그리워한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빛나던 젊은 피부의 윤기는 '자음단™'의 처방이 담긴 윤조 라인으로 되찾을 수 있다. 무너진 균형을 복원시켜 피부는 처음처럼 찬란하게 빛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골드 포인트의 영롱한 유리 오브제는 모두 양유원 작가.

### 윤조에센스 스타 컬렉션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Star Collection

5가지 젊음의 지표인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끌어올려 주는 윤조에센스의 리미티드 디자인이다. 5가지 요소의 완벽한 균형과 이상적으로 반짝이는 피부 상태를 나타내는 별을 담은 디자인으로 설화수 최고의 제품이자 스타들이 사랑하는 제품이라는 뜻의 '스타세럼'이다. 자음단™ 성분이 튼튼한 피부 기초 체력을 만들고 건강한 윤기를 부여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가꿔준다. 120ml 15만원

how to use 아침, 저녁 세안 후 손바닥에 2~3회 정도 펴막하여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펴 바른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를 돕는다.





윤조에센스 스타컬렉션 \*방문판매 전용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Star Collection

피부 노화의 원인인 불균형을 바로잡아 윤택한 피부로 가꿔주는 자음단™을 원료로 건강하게 우러나오는 윤기를 선사하는 윤조에센스의 리미티드 에디션. 설화수 모든 제품의 시작을 이끄는 첫 단계 에센스로 독보적인 사랑을 받는 시그너처 제품이자 5가지 젊음의 지표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빛나는 피부 상태를 나타내는 별을 담은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120ml 15만원

how to use 아침, 저녁 세안 후 손바닥에 2~3회 정도 펴핑하여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퍼 바른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를 돕는다.



살구색, 연보라색 원형 유리 접시는 모두 스튜디오 오유.

윤조에센스미스트 & 윤조마스크  
First Care Activating Serum Mist & First Care Activating Mask

윤조에센스미스트는 피부의 자생력과 생기, 영양, 투명, 탄력의 총체적인 균형을 바로잡는 자음단™ 성분으로 피부의 힘을 강화하고 지친 피부를 관리한다. 미세하게 분사된 오일과 에센스 워터가 농축감 있는 수분으로 건강한 윤빛 피부를 선사한다. 자음단™을 미세망 코튼 시트에 가득 담은 윤조마스크는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키고 최적의 피부 결로 가꿔준다. 윤조에센스미스트 50ml 4만원, 110ml 7만원, 윤조마스크 5매(매당 23g) 6만원

how to use 윤조에센스미스트는 오일과 워터 에센스가 잘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어준 뒤 얼굴에서 10~15cm 떨어진 곳에서 가볍게 분사한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를 도와주고 건조함이 느껴질 때 수시로 사용한다. 윤조마스크는 주 1~2회, 세안 후 첫 단계에서 마스크를 얼굴에 붙여 10~20분간 흡수시킨다. 마스크를 떼어낸 후 남아 있는 내용물이 피부에 스며들도록 가볍게 두드린다.



그린 컬러와 샌드 컬러의 직사각 접시는 모두 사문.  
유리 속 방울이 보석 같은 'Bubbly Shot glass series' 는 모두 최혜숙 작가.

윤조에센스 5대지향  
 청아지향, 백화지향, 윤조지향, 흥서지향, 흑여지향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Forest Morning, Gentle Blossom, First Peace, Capturing Moment, Inner Fullness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우는 설화수의 향의 기록인 '향서'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향을 정리해 윤조에센스에 담은 5대향 컬렉션이다. 자음단™ 성분이 피부 균형을 바로잡고, 아름다운 향은 내면을 케어하는 진정한 홀리스틱 케어를 선사한다. 다섯 가지 향은 푸른 숲길의 청량함을 담은 '청아지향', 매화의 우아하고 은은한 향의 '백화지향', 빛의 온화함을 상징하는 '윤조지향', 붉은 열매의 싱그러움 에너지를 담은 '흥서지향', 땅속 뿌리의 응축된 에너지를 표현한 '흑여지향'으로 구성된다. 90ml 12만원

how to use 손바닥에 2~3회 펴핑 후, 양손에 내용물을 고르게 문힌다. 양손을 모아 코와 입을 감싼 뒤, 호흡을 고르고 향을 맡고 코 부위를 시작으로 얼굴 전체에 원을 그리며 고르게 퍼 버린다. 볼, 이마, 눈가, 턱 순서로 피부 깊이 흡수되도록 꾹꾹 누르고, 감싸주며 마무리한다.



노란색 유리 통과 핑크 유리 구슬은 모두 양유완 작가.

**윤조 라인** 피부 노화의 시작은 나이에만 비례하는 것이 아닌 음과 양의 균형이 깨질 때 시작된다. 이 사실에 주목한 설화수는 오랜 연구를 거듭해 한방 연구의 정수이자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바로 잡아 주는 다섯 가지 원료, 자음단™을 찾아냈다.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 3,000가지 한방 식물 중 오행의 기운과 성질에 맞게 엄선한 5가지는 연꽃, 작약, 옥죽, 백합, 지황으로 이들 원료를 18시간이라는 최적의 시간 동안 정성으로 달이고 설화수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더해 강력한 효능을 품은 자음단™을 탄생시켰다.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해 스스로 빛나는 건강한 피부로 가꿔주고 메마른 피부 대신 절정의 윤을 선사하며 조화와 균형의 브랜드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설화수의 근간이자 대표 원료이다.

설화수는 노화로 무너진 피부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음단™을 다양한 제품에 담았다. 1997년 설화수의 시작과 함께한 윤조에센스를 비롯해 일상에서 수시로 메마른 피부를 가꿀 수 있는 윤조에센스미스트, 마스크 1장에 윤조에센스 3분의 1의 유효 성분을 담아 최적의 피부 결을 선사하는 윤조마스크 등을 통해 피부 균형을 리셋하고 한층 젊고 건강한 피부로 보살필 수 있게 했다. 2018년에는 빛, 나무, 꽃, 열매, 뿌리 등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아름답게 구현한 다섯 가지 향을 윤조에센스에 접목한 5대지향 컬렉션을 선보여 자음단™의 헤리티지와 내면의 감성을 깨우는 향이 어우러진 홀리스틱 뷰티를 완성했다. 유해물질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자음단™을 품은 윤조 라인과 함께하는 피부는 스스로 건강한 빛을 발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S

**First Care Activating Line** Your skin begins to age not just because you are getting older, but because Yin and Yang is not in balance. Sulwhasoo focused on this fact, and discovered JAUM Balancing Complex™, the essence of Korean herbal medicine formulated with five ingredients that restore the balance of the skin, after many years of research. Through thousands of testing, five ingredients have been selected among 3,000 Korean medicinal herbs based on the energy and nature of the five elements: Sacred Lotus, Peony, Solomon's Seal, White Lily, and Rehmannia. These ingredients were brewed for 18 hours, and enhanced with Sulwhasoo's original technology to create the powerful JAUM Balancing Complex™. Sulwhasoo applies JAUM Balancing Complex™ to various products, and restores the balance of aging ski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was launched by Sulwhasoo in 1997. The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Mist serves to replenish dry skin throughout the day, while First Care Activating Mask contains 1/3 of a bottle of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in every sheet for the ultimate smoothness of the skin. These products are formulated to restore the skin's balance, leaving them much younger and healthier. In 2018, five unique fragrances with delicacy and beauty inspired by natural light, trees, flowers, fruits, and roots were applied t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thus presenting 5 Fragrances Collection and completing the holistic beauty that blends the heritage of JAUM Balancing Complex™ and the scents that awaken your senses. Even in an environment filled with harmful external stimuli, you would enjoy the special experience for your naturally healthy and radiant skin along with First Care Activating Line formulated with JAUM Balancing Complex™.





계절의 여왕인 봄을 맞이해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도 다양한 변신과 이벤트를 마련했다. 3주년 기념 '마이 랜턴 투어'에서 매화 향 가득한 행운을 누리며, 오방색으로 빛나는 설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의 세 번째 봄 The Third Spring of Sulwhasoo Flagship Store

아시아의 지혜가 녹아 있는 홀리스틱 뷰티 공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3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마이 랜턴 투어' 등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3주년을 맞이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매화와 함께하는 '마이 랜턴 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향기로운 봄향기가 가득한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모든 방문 고객을 위해 달콤한 기쁨과 힐링을 준비했다. 3주년 랜턴 코인을 머신에 넣어 포춘 쿠키를 뽑는 코인 뽑기 이벤트는 다양한 경품 교환권을 제공해 홀리스틱 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샘플을 선물한다.

또한 도산공원의 푸르름이 한눈에 들어오는 루프탑에서는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티카페와 함께 재미있는 포토존 이벤트가 펼쳐진다. 봄의 기운이 가득 매화 테마로 아름답게 꾸며진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설화수 홀리스틱 뷰티 체험 견본이 증정된다. 포장 서비스에도 매화 향이 가득하다.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봄의 싱그러움 생기를 불어넣어 줄 매화 보자기 포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마이 랜턴 투어' 이벤트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봄을 맞이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화사한 새 단장에 나섰다. 특히 한국인의 삶과 지혜를 담은 오방색 모티브의 크리스털 설치 작품은 설화수 브랜드가 품은 전통적 미감과 품격을 한층 높였다. 음양오행 이론에서 풀어낸 '황, 청, 백, 적, 흑'의 순수하고 섞임이 없는 다섯 가지 색은 만물의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며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쓰였다. 이러한 오방색을 크리스털 조명에 덧입혀 아름다운 빛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조명 전시물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처음 선보인다. 황금빛 브라스의 구조물 사이로 오방색의 크리스털 조명이 빛의 흐름에 따라 반짝이는 모습은 생동감을 준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1층 테라스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어둠 속 빛을 밝혀주는 랜턴 같은 설화수 브랜드의 가치를 상징하며 항상 빛날 것이다. S

In celebration of its 3<sup>rd</sup> anniversary, Sulwhasoo Flagship Store will be promoting 'My Lantern Tour' event with plum blossoms. Filled with the fragrant scent of spring, the Flagship Store has created a place where its visitors can experience comfort and relaxation.

The 3<sup>rd</sup> Anniversary Lantern Coins are handed out to each visitor. Each coin can be placed inside the machine to draw a fortune cookie. The fortune cookies contain a variety of gift tickets so visitors can win the samples and experience holistic beauty.

In addition, the rooftop with an open view of the greenery of Dosan Park offers a tea café and a fun photo zone event. The photo zone is beautifully decorated with the plum blossoms of spring. You can take a picture here and post it on Social media to win the Sulwhasoo Holistic Beauty Trial Kit. The complimentary wrapping service also has the fragrance of plum blossoms. Any customer who purchases products worth 100,000 KRW and above will receive a complimentary plum blossom wrapping service infused with the refreshing vitality of spring. 'My Lantern Tour' event will be available to visitors until May 31.

Sulwhasoo Flagship Store has also been renovated for spring. The crystal installation inspired by the Five Colors reflecting the lifestyle and wisdom of the Korean people has further enhanced the traditional aesthetics and excellence of Sulwhasoo. The lighting installation of Sulwhasoo Flagship Store is made up of crystals stained with these colors to display the beautiful flow of light. This piece, which will always shine to represent the value of Sulwhasoo that illuminates the dark like a lantern, can be found at the 1<sup>st</sup> floor terrace of Sulwhasoo Flagship Store.



## 별처럼 찬란하고 영롱한 설화수의 여정

### 설화수 팝업스토어에서 경험하는 빛나는 피부

설화수는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대표 원료인 자음단과 명실공히 베스트셀러 윤조에센스를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를 강남역 인근에 연다. 이곳은 신비롭고 웅장한 천문대 콘셉트로 꾸며져 호기심을 더하고 피부문진, 제품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설화수의 철학과 5가지 젊음의 지표를 개선시키는 윤조 스토리를 인터랙티브 북으로 만날 수 있고, 매직미러를 통한 진단, 윤조에센스를 경험하는 공간, 특별한 선물과 체험을 선사하는 공간 등 설화수가 준비한 다채로운 즐거움과 빛나는 피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일시 5월 16~28일 장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20)



### 피부 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다

설화수의 스타인 '윤조에센스'가 2019년 리미티드 디자인 제품을 선보인다. 피부 균형을 되찾아 5가지 젊음의 지표인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을 이상적인 형태로 끌어올려 주고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가꿔주기 위해 별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용기 전체가 반짝이는 랜턴 컬렉션과 우아한 백색 용기에 반짝이는 뚜껑을 적용한 두 가지 디자인의 컬렉션으로 용량은 120ml 대용량으로만 선보인다. 최고의 제품이자 스타들이 사랑하는 제품이라는 의미의 2019년 윤조에센스 스타컬렉션은 처음처럼 빛나는 젊은 피부를 선사할 것이다. 120ml 15만원(오른쪽 컬렉션은 방문판매 전용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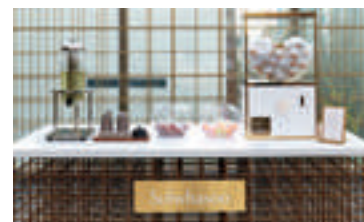
### 고귀한 적송이 눈가의 기운을 복돋는다

시간이 스며들기 쉬운 눈가 피부를 위해 적송의 진귀한 처방을 담은 진설아이크림과 진설아이에센스가 더욱 강력해진다. 한층 강화된 고농축 적송 성분과 보령, 송이 추출물이 더해져 연약한 눈가 피부를 섬세하게 케어한다. 세월의 흐름으로 생겨난 눈가 피부 주름은 감추어 주고 또렷한 눈매로 관리해주는 진설아이크림과 외부 자극으로 인한 눈가 칙칙함과 부기를 다스리는 진설아이에센스는 프리미엄 한방 안티에이징의 정수다. 진설아이크림 25ml 27만원, 진설아이에센스 25ml 27만원(6월 1일 출시 예정)



### 매화와 함께 피어난 세 번째 봄

아시아 뷰티의 정수를 오롯이 담은 시그니처 공간인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 3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마이 랜턴 투어'라는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고객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봄의 생기를 전하는 매화를 테마로 화사하게 꾸며진 포토존, 루프탑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티 카페와 3주년 랜턴 코인을 넣어 포춘 쿠키를 뽑는 이벤트 등으로 채워진 '마이 랜턴 투어' 이벤트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설화수의 홀리스틱 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건분을 증정한다.



雪花秀

Sulwh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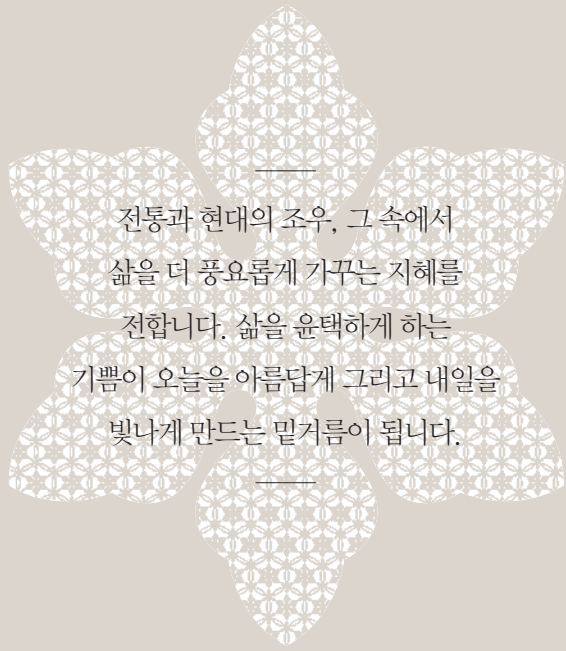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의 생명력으로  
탄탄해진 생기를 살리다  
설화수 설링크림



몸의 피로가 쌓이듯 피부도 피로가 쌓인다는 사실 아셨나요?  
피로가 쌓인 피부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나이와 상관없는 노화가 진행됩니다  
한겨울에 피어나는 매화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피로에 맞서는 설화수 설링크림  
이제, 매일 지치지 않는 탄탄한 생기피부를 시작하세요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위  
유  
다





스트라이프 패턴 자는 HAY, 지우개를 모티프로 제작한 황동 문진은 살림아뜰리에 × 포인트오브유, 하늘색 미니화병은 화병은 Arhoj Studio by 토퍼멘트, 살구색 미니 화병은 에뜨크레이스튜디오, 노란색 세라믹 합은 윤상혁 작가 × LEXUS CREATIVE MASTERS EDITION by 첩터원, 살구베이지색 바닥 페인트는 'DE5177' by 던에드워드 논현점

# 책을 엮는 기쁨

## 전통 제본 배우기

그 옛날 양피지나 파피루스 위에 정성껏 글자며 그림을 새기던 이들을 상상해본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 술한 지혜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책이 존재해서다. 실물 없는 데이터 정보로 가득한 지금도, 종이책이 주는 따스한 질감은 특별하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박혜숙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도움 주신 곳 톨링페이퍼 공방

책의 처음은 언제일까? 인간이 무언가 기록하는 행위를 한 것은 책의 탄생보다 훨씬 더 앞선 일이다. 약속된 언어 부호로 서로의 감정이나 의견을 나누던 고대인은 문자를 발명하고 그것을 기록할 대상이 필요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료에 문자가 새겨졌다. 나무나 돌, 거북이 등껍질은 물론 제사에 쓰이던 그릇이나 기와에도 다양한 흔적이 남았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방식이 필요했고, 그 결과 책이 만들어졌다.

### 책의 기원, 책의 진화

책의 기원이라 추정하는 것은 대나무 등의 나뭇조각에 글을 써 묶은 형태의 죽간竹簡이나 목牍木牘이다. 죽간은 대나무를 쪼개 불에 쪼여 글씨를 쓰기 쉽게 가공한 대나무 조각을, 목牍은 나무를 쪼개서 큰 판을 만들고 표면을 곱게 다듬은 것을 이른다. '책冊'이란 글자는 이러한 나무 조각들이 묶여 있는 모양에서 비롯한다. 한편 죽간과 목牍과 함께 오래전부터 사용한 고대의 책으로 백서가 있었다. 이는 비단에 글을 적어 만드는데 두루마리 형태로 간직했다.

종이와 인쇄술이 등장한 이후 책의 형태는 비로소 완성됐다. 하지만

종이는 무척 비싼 재료였고 관이나 부유층에서만 누릴 수 있었다. 이는 지식이 특정 계층에만 향유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종이책은 더욱 이용하기 쉽고 보존성이 좋은 형태로 발전했다. 장정은 책의 체제를 갖추고 장식하는 의장을 뜻한다. 동양 장정의 역사는 대부분 중국에 기원을 두는데, 후한시대 이후로 종이책이 만들어지며 급속도로 발전한다. 북송시대에는 호접장蝴蝶裝이라는 형태가 전성기를 맞았다. 호접장은 내용이 있는 쪽을 쉽게 볼 수 있게 놓고, 쓰지 않은 빈 쪽을 풀로 붙인 다음 겹장을 붙인 모양이다. 책장을 한 장씩 펼치면 나비가 나는 모양과 같아 그렇게 이름 붙여졌다. 하지만 이 방법은 풀로 종이를 연결하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기 쉬워, 이후 풀 대신 실로 꿰매는 형태로 발전했다. 선장線裝이 바로 그것으로, 풀로만 붙인 책이 잘 떨어져 바늘구멍인 침안을 뚫고 실이나 끈 등으로 책등을 묶은 형태다. 고려 중기에 이미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주로 다섯 개의 침안을 뚫는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이 주류를 이루었다. 책의 얼굴인 표지는 심미적인 기능과 함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구실을 한다. 우리 전통 기법으로 만드는 책의 표지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 먼저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지에 치자梘子 물을 들인다. 잘 익은 치자를 뜨거운 물에 불려 고운체로 걸





### 전통 제본 노트 만들기

**준비물** 표지용 두꺼운 종이, 속지용 얇은 종이 40~50장, 모서리 마감용 얇은 색지 2장, 제본 풀(물풀로 대체 가능), 송곳, 코르크 보드(구멍 뚫을 때 받칠 수 있는 잡지책이나 박스로도 대체 가능), 제본 바늘, 제본 실(일반 바늘과 실로 대체 가능), 구멍 위치 표시용 종이와 자, 필기구 등

#### 만드는 방법

- 1 표지와 속지용 종이를 재단해 준비한다. 표지는 속지보다 가로 2mm, 세로 2mm 정도 큰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속지용 종이의 양은 구멍을 쉽게 뚫기 위해 약 5mm 정도의 두께로 만든다.
- 2 별도의 종이에 제본 실이 들어갈 구멍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두고 속지의 위와 아래에는 모서리 마감용 종이를 붙인다.
- 3 구멍 위치를 표시한 종이를 속지 위에 올려두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같은 방법으로 표지도 구멍을 뚫는다.
- 4 표지와 속지를 합친 상태에서 실을 팽팽하게 당기며 바느질로 구상한 문양을 만든다.
- 5 바느질을 다 하면 실의 끝은 매듭을 진 반대쪽 표지의 구멍으로 나오게 하여 매듭이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실 끝을 바깥질라 마무리한다.

**롤링페이퍼 공방**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재료를 자유롭게 골라 나만의 스타일로 노트와 다이어리, 앨범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방. 원데이 클래스, 이론 수업을 더한 정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주소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26번길 54층 문의 [www.rollingpp.co.kr](http://www.rollingpp.co.kr)



브라운 컬러 화병은 사문, 블루 미니 화병은 정담은도자기, 노란색 팔각 주사위는 포인트오브류.

러서 노랗게 우러난 것을 한지에 고루 바른 후 잘 건조한다. 이를 겹쳐 배접하는 과정을 반복해 말리면 두껍고 튼튼한 표지가 완성된다. 겉 표지의 재료는 종이나 베, 비단으로 하는데 종이가 널리 이용되었다. 치자 물을 들이는 이유는 책의 외관을 아름답게 하면서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치자 물을 들인 후에는 기름을 칠해 수분에 견디고 오래 보존할 수 있게 했다. 베로 만드는 경우 주로 삼베를 썼고, 비단은 궁중이나 높은 지위의 계급에서 사용됐는데 조상에 대한 기록을 담을 때는 중인 계급에서도 비단을 이용했다. 20세기 이후에는 서식의 양장洋裝이 들어와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책의 형태가 되었다. 양장은 유럽에서 14세기 이후 행해진 장정 방법으로 가죽이나 직물, 두꺼운 종이 등으로 만든 단단한 표지에 내지를 먼지를 이용해 붙여 꿰매어 묶은 책이다.

### 예술이 되는 책

책이 단순히 내용 전달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처럼 다양한 제책 방식이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책은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메신저이면서 스스로 완결성을 가진 오브제, 작품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글씨와 삽화를 가진 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빛난다. 북 아트는 책과 예

술을 합한 개념으로, 독립된 예술의 한 장르이다. 북 아트의 기법 또한 다양하여 과거와 현대의 제책 방식을 넘나든다. 병풍처럼 지그재그로 접어서 펼치는 아코디언 북, 책을 펼쳤을 때 페이지가 깃발처럼 한쪽 방향으로 누워 펼쳐지는 플래그 북, 낱장의 종이를 한 곳에 모아 고정시켜 펼치는 팬 북, 긴 종이를 말아서 한쪽 면만 사용이 가능한 두루마리 북, 그림들이 입체적으로 튀어 오르는 팝업 북 등이 있다.

한편 북 바인딩은 북 아트의 하위 내용으로, 책의 형태를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일컫는다. 특히 '예술 제본'이라는 개념은 현대에 와서 생긴 것이다. 과거에는 책 만드는 과정이 모두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으나 산업화 이후 기계로 대체됐다. 이러한 흐름에서 수작업 방식을 고수해 만든 책을 구분하기 위해 예술 제본이란 용어가 나타난 것이다. 유럽 등 서구에서는 수백 년을 이어 수작업으로 책을 만드는 문화가 건재한다. 지난한 과정과 많은 노력을 요하지만 오래된 소중한 책을 다시 아름답게 고치거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책을 제작할 수 있어 큰 기쁨을 준다.

이번에 만들어본 전통 제본 노트는 한지를 이용해 한국적인 미감을 더했다. 제본 실이 만들어내는 문양은 만드는 이의 감각에 따라 다채롭게 변형할 수 있다. 또한 표지와 내지의 배색이나 종이의 재질 등에 따라 더욱 특별한 노트가 탄생하니 도전해볼 만하다. S

# 감사와 축원 담는 성스러운 그릇 The holy vessels of gratitude and prayers

까마득한 옛날, 인간은 변화무쌍한 자연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애써야 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매순간이 경이와 공포였을 그때, 신에게 드리는 기도는 그 무엇보다 절실했을 것이다.

글 민소연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이종근

인류 문명에서 제사는 가장 오래된, 원초적인 예식 활동이다. 자연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던 고대 사람들은 안락한 삶을 신에게 기원했고, 이는 제사의 시초가 됐다. 문명이 발전하면서 제사는 일정한 격식을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동양에서는 조상 숭배가 사회적인 규범이 되면서 크게 성행했다.

조선시대의 제례는 크게 공공기관인 관을 중심으로 거행했던 것과 일가족의 제사처럼 사적인 집단에서 행했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공제례의 경우 지배계급의 권위를 나타내어야 하므로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하다. 그에 비해 사사私事제례는 권위보다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조상을 추모하는 성격이 강해, 비교적 단순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쓰이는 그릇, 제기 역시 공공제례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숫자도 많은 반면, 사사제례는 비교적 그 종류나 생김새가 단순한 편이다.

제기는 일반적으로 사당에 따로 소중하게 보관했다. 주희朱熹가 쓴 <가례家禮>에 따르면, 제기는 목적에 따라 따로따로 준비하고, 사당 밖에 주구廚庫를 세워 제물을 장만하는 신주神廚와 함께 의물衣物·유서遺書와 제기를 각각 보관하며, 자물쇠를 채워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곡례曲禮>에서는, 군자는 가난할 지라도 제기를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말고, 남에게 빌려서 사용하지 않으며, 제기를 먼저 마련하기 전에 일상 그릇을 장만하지 말라고 했다. 이처럼 제기는 성스럽고 귀한 의미를 가졌고, 평상시 쓰는 그릇과 구분할 수 있게 굵을 높게 하였다.

도예가 이기욱과 나무 가구제작소 '제너럴그레이'가 협업한 제기는 백자와 나무로 전통을 재해석했다.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모듈 형태로 제작해 기존 제례의 권위적이고 엄숙한 무거움을 조형미를 갖춘 실용적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 S

Ancient people believed that there are gods in nature, and worshipped them for their well-being. This was the origin of ancestral rituals.

As civilizations developed, rituals started to take specific formats. In the East, ancestral rites became a social norm and were widely popular. In the Joseon Dynasty, ceremonial rituals were categorized as public that were carried out by public offices and as private led by individual families. In the case of public rituals, the process was very complicated and rigorous because it represented the dignity of the ruling class. The private ones, on the other hand, were held to remember ancestors in a solemn atmosphere, and the process was relatively simple.

Those vessels were generally kept separately at the shrine. According to <Garye> written by Zhu Xi, the vessels were prepared for each purpose, and a storage area was built outside the shrine to house a kitchen for ritual food and keep ritual supplies and costumes, ancestral wills, and ritual vessels. The storage facility had to be locked so it would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Also, according to <Gongnye>, ritual vessels should not be used for everyday purposes even if you are poor, should not be borrowed from others, and everyday tableware should not be purchased before ritual vessels are prepared. Ritual vessels were considered holy and precious, and were valued higher than everyday vessels.

In collaboration with General Gray, artist Gi Wook Lee's ritual vessels have been reinterpreted in tradition with contemporary perspectives. They come in the shape of modules that can be piled up stably, thus transforming the authoritative and solemn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rituals into practical beauty.



백자 제기, 조선시대



<일상의 제기>, 이기욱 작가 · 제너럴그레이 협업





전국을 돌며 입말음식의 요리법을 수집하는 동안, 하미현 대표는 수많은 밥상을 받았다. 놓인 곳 어디든 식탁이 되는 밥상의 미술은 늘 매력적이다. 우리 전통 소반을 꾸준이 모으는 이유다.

# 입말로 이어지는 맛있는 인생

입 말 음 식 연구 가 하 미 현

어머니에게서 어머니, 딸에게서 딸로 전해지는 요리법이 있다. 지역마다 가족마다 다른, 그래서 공동체적 끌어당김을 품는 그 특별한 레시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하거나 때론 시멸한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글 민소연 사진 박혜숙

연희동 깊숙한 곳에 그녀의 작업실, 정갈한 부엌이 있다. 입말음식 연구가 하미현이 대표로 있는 '아부레이수나'는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게'라는 뜻의 경상도 예천 모내기 민요에서 가져왔다.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상태.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 기우뚱거리는, 아슬아슬 줄타기 같은 우리 삶이 바라는 단비 같은 휴식이 아닐까. 아부레이수나의 하미현 대표는 우리 전통 음식, 전통 식문화를 연구한다. 궁중의 고귀한 신분만이 향유했던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방 토박이들이 세대를 거듭하여 이어온 음식과 식재료를 기록하고 알리는 일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래서 입말로 설명하는 음식 문화. '입말음식'이란 낯선 표현이 가진 뜻이다. 프랑스에서 의상학을 전공하고 광고 아트 디렉터로 활약하던 그녀는 이제 입말음식을 알기 위해 전국의 농가를 찾아다니며 소박하고 건강한 밥상을 경험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요리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가 쪽으로 요리사가 5명이 넘었고, 어머니도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손도 크시고요. 직접 음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사찰음식을 먹고 반한 다음이죠. 단 순하지만 재료의 본질이 느껴지는 맛이 저를 매혹시켰어요. 익숙하고 좋은 느낌의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공방간에 드나들며 요리를 배웠어요. 그렇게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농부들, 토박이의 음식과 식재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새롭게 발굴해 기록하고 알리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식문화는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세계인이 좋아하는 양념만 고추만 해도 일 년 내내 취할 수 있는 남미 같은 곳에선 신선한 열매로 여겨 그 풍미를 즐긴다. 우리처럼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같은 식재료로 대륙마다, 문화권마다 수많은 상이한 레시피가 발생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제철 토종 식재료를 그 지역의 독특한 레시피로 요리하는 것은, 그 재료를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지혜일 터이다. "토박이의 음식은 생존의 문화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나기 위해 뿌리에서 이파리까지 모든 부분을 활용해 요리하는, 결핍의 문화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밥상은 결코 초라하거나 가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귀하고 아름답지요." 하미현 대표는 여전히 '국외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자평한다. 지금 당장 옮겨 쓰일 수 있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찾는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아집이나 편견 없이 맑은 눈. 사찰음식의 '본질적인 맛'에 반해 생의 방향을 거침없이 바꿀 수 있었던 힘은 아마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S





## 낮선 소쇄원, 다정히 바라보다

온갖 꽃과 나무가 제각각 다른 모양과 색깔로 화려함을 뽐내는 봄날. 아름다운 정원의 따스한 양지와 서늘한 그늘을 번갈아 걷는다. 상상과 표현, 인식과 예술이 자유롭게 뛰노는 마당. 거기에는 우리 정원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도움 주신 곳 올댓가든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의 정원展 : 소쇄원 낮설게 산책하기>는 ‘한국의 정원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수많은 활동가, 예술가의 대답이다. 또한 이 질문은 관객 스스로가 전시를 통해 답을 찾고 깨달아가는 동기이기도 하다. 국내 장르별 활동가들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참여해 만든 ‘컬렉티브’ 형식의 이 전시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과 한국 정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낳는 마당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현대미술 작가에 한 한정하지 않고 더욱 폭넓은 현장에서 창조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을 참여자로 초대하는 것이 특이하다. 동양화, 인간환경연구, 영상예술, 공간연출, 설치작품, 그래픽디자인, 사진, 공예, 에세이 등 여러 장르의 전문가가 서로 낮설게 만나, 소쇄원을 산책하고 한국의 정원에 대한 관점이나 미감을 공유하며 ‘연대’해서 보여주는 예술적 실천에 가깝다. 활동가 집단 ‘올댓가든’의 이번 전시는 인과관계로 엮인, 실제적이거나 허구적인 이야기의 감각 및 감상이 공존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원을 엔터테인먼트 사업화하는 실험이다. 프레임을 해방된 영상들이 경계를 초월하며 새로운 의미의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순간을 맞닥뜨린다. 또한 전시회장은 ‘사진 찍는 인간(Homophotocus)’이라고 불릴 만큼 사진을 사랑하는 현대인에게 최고의 흥미로움을 제공하는 촬영 공간으로도 의미 있다.

한국의 정원은 자연스러운 것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관념이 빚어낸 공간이다. 물론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가 정원에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원 속의 산수가 가꾸어진 모습은 물론이고 인공 건축물도 인위적인 특징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 속에 어울리도록 지어진 모양새에서는 한국의 정원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중국 명나라의 계성이라는 정원사가 쓴 책 <원야(原野)>에 언급되는 “수유인작 완자천개 雖由人作 宛自天開”, 즉 “비록 사람이 만들어지 하늘에서 만든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구

절과도 절묘하게 어울린다.

이번 전시는 ‘낮설게 산책하기’라는 테마로 소쇄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다. 담양 소쇄원은 한국의 민간 정원 중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받는,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이다. 1530년 조선시대 문인 양산보가 스승 조광조가 유배되자 세상에 뜻을 버리고 자연에 숨어들어 은둔 생활을 하면서 조성됐다. 숲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조경 대상으로 삼아 그 흐름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곳에 집과 정자를 배치했다. 기묘사화 등 흥흥했던 시절을 지내던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이곳에서 풍광을 감상하며 여유를 찾았고 이상을 토론했다.

소쇄원이 누구에게나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기억되는 공간은 아닐 수도 있다. 군데군데 밟히는 무성한 잡초와 거친 돌부리, 흙길에 거칠고 투박하게 쌓여 있는 석축들과 담장, 울퉁불퉁한 바위를 타고 흐르는 계류,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두 개의 건물 등을 대하는 순간 어쩌면 누군가 조금 낯설다는 느낌부터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어쩌서 이곳이 한국의 정원으로서 대표성을 지니는지 궁금하기도 할 터이다. 바로 이와 같은 독특한 감각, 즉 원래 있던 계류와 지형을 잘 활용한 공간의 자연스러움과 독창성을 돌아보도록 한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전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소쇄원을 보여주는 사진부터 촉각과 청각으로 정원과의 신선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설치 작품까지 아우르며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소개한다.

프롤로그 ‘소쇄원, 낮설게 산책하기’부터 시작되는 전시는 섹션1 ‘일상으로부터 달아나기’, 섹션2 ‘따뜻한 기억을 상상하는 순간’, 섹션3 ‘조금 특별한 것을 허락한다면’, 섹션4 ‘같이 산책할까요로 전개되며, 에필로그 ‘낮설게 산책하는 정원, 소쇄원으로 마무리된다.

먼저 첫 번째 도입부, 프롤로그에서는 ‘유니트폼의 설치 작품 <Biophilia>와 신선우 작가의 영상 작품을 체험한다. 관객들은 서서히 초록색 공간으로 진입하면서 ‘일상으로부터 달아난’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



종이로 만든 대숲의 미세한 흔들림 위로, 푸르른 자연의 이미지가 영상으로 흐른다. 실제로 존재하는 소쇄원이라는 자연과 그것에 영감을 받아 다시 생겨난 다양한 표현이 뒤섞이는 공간





〈한국의 정원 展 - 소쇄원 낮설게 산책하기〉

일시 2019년 4월 18일~5월 19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문의 1811-7203



500년 동안 소쇄원이 품고 있었던 수많은 의미는 현대로 와 상상의 원천이 되었다. 시간 속에 축적된 풍경은 터널로, 끼만 밤을 비추던 환한 달빛은 고요한 방에서 오롯이 떠오른다.

다. 한국 정원에 대한 관념을 다채로운 시선으로 설명하는 서울대학교 인간환경디자인연구소의 도큐먼트월, 그리고 그 안에 소쇄원의 역사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강성남의 영상 작품을 지나면 '서재는 나에게 정원이자라고 말하는 북 큐레이터 김명수의 북디오라마 작품 〈서원〉이 있다. 그 앞으론 경계가 허물어진 창을 넘어 한 폭의 풍경화가 쏟아진다. 공간연출가 오창열은 소유할 수 있도록 벽에 거는 그림과는 달리 풍경 요소를 그대로 존재하게 한 뒤 그것을 살아 있는 풍경화로 재현한다. 붓 한 번 들지 않고, 물감 한 번 찍지 않고 말이다. 그 답을 따라가다 보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소장한 초목을 표본과 영상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두 번째 섹션 '따뜻한 기억을 상상하는 순간'에서는 소쇄원의 풍경을 기록한 꿈정 활동가의 사진으로 소쇄원의 빛을 기록하고 관찰한다. 또한 상상의 정원 소쇄원을 그래픽으로 재현한 오디너리피플의 작품 〈몽타주〉를 통해서도 소쇄원을 현실 공간 이상인, 하나의 이상향으로 그려보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의원기意園記'라는 형식의 글을 통해 이상적인 정원 환경을 그리고 상상의 세계를 넓혀나갔던 과거의 선비들처럼 말이다.

소쇄원에 있는 정자 중 제일당을 테마로 어둠의 시공간을 상상해볼 기회는 세 번째 섹션 '조금 특별한 것을 허락한다면'에서 찾을 수 있다. '비 갠 뒤 하늘의 상쾌한 달'을 뜻하는 제일露月이란 이름에서도 떠오르는 '어둠 속의 빛이 박한샘의 동양화 〈해와 달의 시〉를 통해 구현된다.

네 번째 섹션 '같이 산책할까요'는 소쇄원에서 '만남'의 공간인 광풍각을 모티브로 한다. 500년 시간의 기억을 주름으로 표현한 송계영 활동가의 종이 설치 작품, 〈환영의 소쇄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다음엔 영상을 연출하고 제작하는 〈그곳에 피우다〉의 신선우와 인터랙티브디자이너 박정민이 만나 환생시킨 500년 전 소쇄원의 나비와 마주한다. 거기에 조경디자이너 스무스 유의 실내 조경 속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바람 소리와 물 소리가 조곤조곤 귓가를 간지럽힌다. 관람객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소셜 미디어아티스트 신준범, 공예가 윤남과 조하나, 플로리스트 박꽃슬에 의해 소쇄원은 새로운 의미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소쇄원 안의 땅, 물, 나무, 바람, 달, 별, 풀, 담장, 정자, 꽃 등이 전하는 다채로운 감성을 다양한 장르의 활동가가 빚어내는 작품으로 만나고 있으니 어느덧 잊고 있던 옛 감각이 깨어나는 듯하다. S

## 그릇과 예술 사이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작품 같은 그릇으로 식탁을 차리는 것. 평범한 밥상을 특별하게 채워주는 맛을 담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김진희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 드 플로디아)



나무를 꽃 모양 그릇으로 깎고 고운 분홍색으로 옷칠한 매화 꽃볼은 아름다우면서 건강한 그릇이다. 박수이 작가 by 수이아들리에



동그란 구 형태의 손잡이가 재미를 더하고 신비로운 미블링 패턴이 독특한 컵과 접시는 김혜린 작가 by 오브크



매트한 질감과 상쾌한 컬러가 예쁜 디지털와 잘 어울리는 사각 유리 접시는 유혜연 작가 by 스튜디오 오유.

집밥 열풍이 불면서 그릇을 고르는 안목과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금속과 검소를 강조하는 유교 질서를 따르던 조선시대의 단조로운 식기 역사에 이어 식기 세트라고 하면 으레 떠올리던 외국산 브랜드들이 점령하던 시절을 넘어 다행히도 점점 우리의 취향이 담긴 그릇으로 꾸민 식탁 풍경이 늘고 있다.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세트 구성의 그릇보다 음식 제각각 적합한 그릇을 선택하고, 건강한 소재로 만든 안전한 그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흙을 빚어 구워낸 도자기는 무조건 건강한 그릇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저가의 유약이나 전사지 등은 납 성분이 있는 경우가 있다. 너무 저렴하거나 화려한 색과 문양보다는 공방의 작가들이 손수 빚거나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기 그릇은 농약이나 화학약품이 닿으면 색이 변하고 살균 효과가 있어 몸을 살리는 그릇이다. 항균 효과가 있는 옷칠을 한 목기는 가볍고 내구성도 뛰어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채로운 색상과 조형미를 뽐내는 유리 그릇은 눈부터 맛있는 식탁을 차려줄 것이다. S



금속에 옷칠을 입히고 금태칠 기법과 자개 작업으로 영롱한 빛을 더한 볼은 무겁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김현주 작가 by 해브빈서울.



보온·보냉 효과가 탁월하고 살균 기능이 있는 전통 유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검은색 옷칠을 더한 밥 그릇은 문채훈 작가 by 다문.



전통적인 물레 작업을 통해 손결의 느낌이 살아 있고 현대적인 미감을 멋스럽게 담은 흑유도자기 그릇은 이구도예 by 해브빈서울.



실험적인 소재를 연구하며 레진으로 신비로운 우주의 행성을 담은 패턴을 만들어낸 트레이는 픽트스튜디오.



지비화 열매도를 모티브로 도자기에 꽃과 열매를 새겨 과거의 현재성을 표현한 저그는 전하람 작가.



차를 마시는 시간을 싱그러게 채워주는 하늘색 티포트와 컵. 티포트 뚜껑은 디지털나 티백을 올려두는 접시로 활용할 수 있다. 아엘



나무의 아름다운 결이 살아 있고, 다채로운 컬러를 옷칠로 입힌 타원형 트레이는 오토오토.



친환경 플라스틱을 사용해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버블 시리즈 컵은 류종대, 유남권 작가 by 라이플로.



투명한 기포가 보석처럼 박히고 유리 성형 중 생긴 형태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된 유리 술잔 '버블리 쇼트 글라스'는 최혜숙 작가.



# 생동하는 에너지로 물들다

나른하고 지루해진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싶다면 올해의 컬러 '리빙 코랄'의 도움을 받아보자. 화사하고 우아한 분위기도 덩으로 얻을 수 있다.

에디터 박효성



화사한 생기와 윤기를 부여하는 코랄 컬러와 하이라이트가 멀티로 구성되어 품격 있는 메이크업을 완성하는 설화수 래디언스 블러셔 코랄 하모니.



코랄 컬러가 섞인 플라워 패턴이 이국적이고 시원한 기분을 선사하는 플랫폼 샌들은 잇아이원트.



심플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 공간. 가벼운 캔버스 소재로 실용적인 가방. 마르헨제이.

미국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은 매년 '올해의 트렌드 색'을 발표한다. 이렇게 선정된 올해의 색은 패션, 뷰티, 리빙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일상 곳곳을 채운다. 2019년을 물들일 색은 황금빛이 더해진 오렌지 톤의 산호색 '리빙 코랄'이다. 바닷속 산호처럼 활기가 넘치는 자연의 색으로 온기와 안정감을 주고, 기분전환을 하게 만드는 낙천적인 색이라고 팬톤은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황색, 분홍빛, 살구빛이 감돌아 사랑스럽고, 붉은 계열과 조합하면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회색이나 어두운 색과 함께 연출하면 차분하고 우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리빙 코랄 컬러는 동양인 피부에 잘 어울리는 워터이면서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색으로 입술과 볼에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생기를 더해준다. 패션에서는 로맨틱하고 신뜻한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밝고 고급스러운 색감만으로도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화려한 장식보다 간결한 디자인을 선택하길 추천한다. 가방과 신발 등의 소품은 미니멀 룩에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산뜻하면서도 과하지 않게 리빙 코랄을 즐길 수 있다. S



'고귀함'이라는 꽃말을 가진 목련이 그려져 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폰 케이스는 마리몬드.



골드 스테인리스 프레임과 오렌지 코랄 컬러가 유니크하게 어우러진 선글라스는 더블랙스완.



스프링을 모티브로 생동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섬세한 금속 가공의 코랄 컬러 브로치는 이수인 작가 by KODF갤러리숍.



부드러운 스웨이드로 제작해 착화감이 편안한 오렌지 컬러의 남성용 드라이빙 슈즈는 버건디서울.



오렌지 컬러와 핑크 컬러 블록이 독특하고 실루엣은 우아하게 마무리된 스커트는 렉토.



선명한 코랄 컬러가 눈길을 사로잡고 수술 장식이 에스닉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박스형 원피스라 착용감이 편안하다. 오수.



다채로운 컬러 조각들이 테라조 패턴으로 디자인된 파우치. 세균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해 튼튼하다. 마킷그래픽 by 모엠컬렉션.



전통적인 수호신이었던 호랑이 문양이 새겨진 비단으로 제작한 '즐거운 호랑이 양단 복주머니 백'은 호호당.



상큼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코랄 컬러의 스냅 반지갑. 카드와 신분증, 지폐 등을 콤팩트하게 수납할 수 있다. 버밀란.

#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 윤조 라인

**윤조에센스**  
● 윤조지향 ● 청아지향 ● 백화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설화수의 향으로 감성을 일깨우고,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자음단™이 건강한 피부 윤기와 홀리스틱 케어를 선사하는 5가지 윤조에센스

60ml | 90,000원대  
90ml | 120,000원대

**윤조에센스 스타컬렉션**  
자음단™이 5가지 종류의 지포와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윤조에센스를 반복하는 별로 상정해 디자인한 대용량 리미티드

120ml | 150,000원대

**윤조에센스미스트**  
자음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생기는 오싹 피부를 선사하는 에센스 미스트

50ml | 40,000원대  
110ml | 70,000원대

**윤조마스크**  
자음단™이 미세한 코트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집중 보습성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젤 타입 스킨

125ml | 57,000원대

**자음유액**  
매끄럽게 퍼 빌리고 밀착히 흡수되어 피부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매끈하고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지산체™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를 가꾸주는 탄력 강화 크림

75ml | 105,000원대

### 자음생 라인

**자음생수**  
귀하게 얻은 증상수™가 농밀한 수분을 공급해 촉촉한 피부 바탕을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스킨

125ml | 80,000원대

**자음생에센스**  
농축된 인삼 에너지를 담은 미세 캡슐 진세나스피어™가 꼭 찬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

50ml | 200,000원대

**자음생유액**  
귀하게 얻은 증상수™가 메마른 피부에 탄력과 영양을 공급하는 인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9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 있고 매끈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홍삼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 180,000원대

**자음생페이셜오일**  
귀한 인삼 증자유가 함유된 오일이 피부에 정돈된 윤기 장벽 케어를 선사하는 페이스 오일

20ml | 130,000원대

**자음생크림**  
강력한 인삼 결정체가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워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자음생크림 라이트**  
강력한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인티에이징 크림 (신뜻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성분과 더더 롱폼 시트™가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인티에이징 크리미 시트 마스크

5매 | 120,000원대

### 진설 라인

**진설클렌징폼**  
진한 거품이 깨끗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 폼

150ml | 60,000원대

**진설수**  
피부 생리력을 강화하는 적응에 건강, 미고 성분을 더해 피부에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스킨

125ml | 125,000원대

**진설에센스**  
강인한 적응에 진귀한 산양삼 성분을 더해 탄력, 생기 주름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80,000원대

**진설유액**  
피부 생리력을 강화하는 적응에 해송자유 성분을 더해 윤택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멀전

125ml | 140,000원대

**진설아이에센스**  
적응의 강인한 생리력과 골든아이(아미노산)가 눈가 칙칙함과 부기를 케어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5ml | 270,000원대

**진설아이크림**  
고농축 적응에 보령 송이 성분을 더해 눈가 피부의 활력을 길러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진설크림**  
고귀한 적응과 산양삼의 강인한 생리 에너지를 피부의 힘을 길러주어 한결같이 젊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470,000원대

**진설마스크**  
강인한 적응의 생리력으로 다음 날 아침 더욱 맑고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슬리피 마스크

80ml | 200,000원대

### 설린 라인

**설린수**  
매화의 향신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바탕을 가꾸주는 생기 베이스 스킨 컨디셔너

150ml | 75,000원대

**설린에센스**  
매화의 향신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꾸주는 생기 탄력 에센스

50ml | 140,000원대

**설린크림**  
매화의 향신화 에너지를 담아 외부 유해오염과 피부 노화의 징후로부터 케어해주는 생기 탄력 크림

50ml | 150,000원대

### 수울 라인

**수울미스트**  
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청온함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100ml | 42,000원대

**수울크림**  
시원한 자작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수울선플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선플루이드

50ml | 55,000원대

### 다함설 라인

**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삼이 절묘한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럭셔리 인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토 성분이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꾸주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수**  
자친 피부를 정돈해 주고 미백 효능을 끌어올리는 젤 타입 브라이트닝 스킨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자정미백스파트먼트**  
기미·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름 유발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자정미백아이에센스**  
광링 자외선 차단제와 젤 텍스처가 눈가 피부를 맑게 가꾸주는 브라이트닝 아이에센스

15ml | 75,000원대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50ml | 135,000원대

**자정토닝팩**  
백상 성분을 담은 켈 포뮬러가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 바탕을 가꾸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80ml | 65,000원대

### 음션 라인

**자정미백마스크**  
고밀착 시트가 즉각적으로 맑은 인색과 탄력감을 선사해 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 65,000원대

**상백크림**  
(SPF 50+ / PA+++)  
피부를 보호해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인티올루션 미백 선크림

40ml | 75,000원대

**음운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임 팩

150ml | 42,000원대

**예울마사지크림**  
크림과 오일이 조화를 이루어 편안하게 롤링되고 촉촉하고 활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롤링 마사지 크림

120ml | 55,000원대

**여운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면 팩

120ml | 52,000원대

**설안팩**  
옥의 기운으로 맑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꾸어주는 수면 팩

80ml | 8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리커버리)  
병통 성분이 손상된 입술 표면을 촉촉하게 매워 건강하게 가꾸어 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에센셜 립 마스크**  
(모이스처)  
천국, 땅구수, 대추 추출물이 매끈하고 윤기 있는 입술로 가꾸어주는 립 마스크

10g | 45,000원대

### 여운 라인

**여운오일 5대지향 컬렉션**  
● 청아지향 ● 백화지향 ● 윤조지향 ● 홍서지향 ● 흑여지향  
귀한 한방 성분을 담아 피부에 깊은 영양 보습을 채워주고, 자연 스카에서 영감을 받은 설화수 5대지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라미트&리치 타입 페이스 오일

20ml | 85,000원대 (라미트 ● ● ● ● ● 리치 ● ● ● ● ●)

**명의본초염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택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8주 케어 인티에이징 염물

8ml x 4 | 200,000원대

**에소침크림&패치**  
입가 갈라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주는 크림&패치

25ml (크림)+10g (패치) | 200,000원대

**에빛크림**  
빛 갈 윤으로 6(六) 자존을 밝혀 하루 종일 물결치는 기색을 유지하는 빛 크림

50ml + 20ml | 150,000원대  
튜브 20ml | 50,000원대

**소선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빛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인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탄력네크림**  
지산체™의 5가지 한방 오일로 연약한 피부 탄탄하고 매끄럽게 가꾸주는 인티에이징 네크림

60ml | 80,000원대

**백옥 보석 마사지**  
얼굴과 목, 바디까지 마사지를 해 리프팅 케어와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100% 백옥 소재 마사제너더 케어 전용 240,000원대

### 클렌징 라인

**공중비누**  
홍삼향의 향신화 효능으로 매끄럽고 생기 있는 피부를 선사하는 40일 수성 프리미엄 한방 비누

100g x 2 | 45,000원대

**순행클렌징워터**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알뜰히 없애주는 촉촉한 저지극 수분 클렌징 워터

200ml | 38,000원대  
400ml | 63,000원대

**순행클렌징오일**  
신뜻한 사용감의 오일이 노폐물과 메이크업 잔여물을 물론 미세먼지까지 없애주는 수분 탄력 클렌징 오일

200ml | 42,000원대

**순행클렌징폼**  
수분을 가득 머금은 거품이 피부 노폐물은 물론 미세먼지까지 없애주는 미일드 리퀴드 클렌징 폼

200ml | 37,000원대

### 바디 & 헤어

**연성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에 탄력을 가꿔 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바디 크림

200ml | 80,000원대

**동백윤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핸드크림 5대지향 컬렉션**  
● 청린향 ● 백은향 ● 금유향 ● 홍과향 ● 흑진향  
귀한 한방 오일이 건조한 손에 깊은 보습과 윤기를 선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향으로 내면의 감성을 일깨워주는 라미트 & 리치 타입 핸드크림

40ml | 30,000원대 (라미트 ● ● ● ● ● 리치 ● ● ● ● ●)

**에센스본염물**  
천심화 홍삼이 혈행과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마시는 홍삼 염물

20g x 30 | 170,000원대

### MEN

**리프레시클렌징폼**  
천연 파우더 성분과 조일한 거품의 데일리 스크럽 겸용 클렌징 폼

150ml | 30,000원대

**분운에센스**  
주름 탄력 촉촉함을 케어해주는 워터 젤 타입의 인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분운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인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분운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씨 오일 성분의 고보습 인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릴렉싱 UV 프로텍터**  
(SPF 50+ / PA+++)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서**  
● 1호 라이트 핑크 ● 2호 라이트 파플 ● 3호 라이트 그린  
메이크업밸런서 (SPF 34 / PA++)  
피부 결과 피부 톤으로 밸런싱하는 메이크업 밸런서

35ml | 65,000원대

**CC유액**  
● 1호 핑크 베이지 ● 2호 미디엄 베이지  
매끈한 도자기 피부 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컨실러 스틱**  
● 1호 미디엄 핑크 ● 2호 미디엄 베이지  
에센셜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정질 한방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5g | 40,000원대

### 쿠션

**퍼펙팅쿠션**  
(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기법고 미세한 케어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마무리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커미 유기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자정 브라이트닝 쿠션**  
(SPF 50+ / PA+++)  
진주빛 광채로 맑고 희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자정미백 쿠션

14g x 2 | 68,000원대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질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인티에이징 쿠션

15g x 2 | 8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 파우더 파우더

**파우더 포 쿠션**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세팅되어 빙글 빙글 도는 듯한 신뜻함을 유지시켜주는 파우더 파우더

8g | 65,000원대

### 하이라이터

**멀티 쿠션 하이라이터**  
피부에 생기 불뿔을 선사하는 펄 베이스 겸 하이라이터

8g | 40,000원대

### 쉬어 레스팅 메이크업

**쉬어 레스팅 파운데이션**  
(SPF 25 / PA++)  
쉬어 하이드라 포뮬러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8,000원대

**쉬어 레스팅 젤 쿠션**  
(SPF 35 / PA++)  
젤 텍스처와 마이크로 망으로 화사함을 선사하는 쿠션

12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 에서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에서 파운데이션(리퀴드)</b> (SPF 15 / PA+) 3중 보습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p> <p>30ml   55,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에서 파운데이션(크림)</b> (SPF 20 / PA++) 영양 크림을 바른 듯 매끄럽게 커버해주는 크림 파운데이션</p> <p>30ml   55,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에서 스킨케어(SPF 25 / PA++)</b>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p> <p>14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에서 트윈케이크</b> (SPF 30 / PA+++) 답답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p> <p>11g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에서 파우더</b> 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꾸주는 파우더</p> <p>20g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자정 에센스BB(SPF 50+ / PA+++)</b> 하루 종일 밝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브라이팅 에센스 BB</p> <p>30ml   6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자정 미백UV팩트</b> (SPF 50+ / PA+++) 자외선과 유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브라이팅 팩트</p> <p>9g   60,000원대(리필 45,000원대)</p>
---	--	--	---	---	---	---

### 진설 메이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진설 윤메이크업크림</b>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p> <p>30ml   9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진설 윤파운데이션</b> (SPF 25 / PA++) 피부 표면에 촘촘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p> <p>30ml   9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1호 은은한 색</li> <li>23호 차분한 색</li> </ul> <p><b>진설 윤팩트</b> 영문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p> <p>13.5g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호 핑크 하모니</li> <li>2호 코랄 하모니</li> </ul> <p><b>레이디언스 블러셔</b> 자연스럽게 화사한 핑크와 윤기를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p> <p>10g   6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호 애플리콧 세럼</li> <li>2호 블라썹 세럼</li> <li>3호 플라워 핑크</li> <li>4호 로즈 레드</li> <li>5호 블라썹 코랄</li> <li>7호 딥 베리</li> <li>9호 글로우 오렌지</li> <li>10호 비비드 핑크</li> <li>11호 레디언트 레드</li> <li>12호 소프트 오렌지</li> <li>38호 서플 핑크</li> <li>59호 아몬드 레드</li> </ul> <p><b>에센셜 립세럼 스틱</b> 고보습 보호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꾸주는 데일리 립 케어</p> <p>3g   40,000원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호 라이트 브라운</li> <li>32호 예시 브라운</li> <li>34호 딥 브라운</li> <li>75호 다크 그레이</li> </ul> <p><b>아이브로우 퍼팩터</b> 부드러운 발색으로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페인팅</p> <p>0.3g   20,000원대 (리필 14,000원대)</p>	<p><b>실란 컬러팩트</b> 전통 임시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심장형 문양을 새기고 미세한 입자로 곱고 맑은 피부를 표현하는 프리미엄 컬러팩트 파우더</p> <p>9g×2   180,000원대</p>	<p><b>실란 컬러팩트</b> 전통 임시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심장형 문양을 새기고 천연 유래 색소로 자연스러운 광택감을 주는 컬러팩트</p> <p>9g   180,000원대</p>
---	---	---	---	--	---	--	--

###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p><b>윤조에센스 랜턴컬렉션</b> 자몽단*이 피부 윤기를 선사하고 아시아 지역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첫 번째 에센스</p> <p>60ml   90,000원대 120ml   150,000원대</p>	<p><b>자음수 랜턴컬렉션</b>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적시고 아시아 지역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젤 타입 스킨</p> <p>125ml   57,000원대</p>	<p><b>자음생유액 랜턴컬렉션</b> 매끄럽게 발리고 밀끔히 흡수되어 아시아 지역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스킨 로션</p> <p>125ml   63,000원대</p>	<p><b>자음생크림 랜턴컬렉션</b> 인상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역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상 안티에이징 크림</p> <p>60ml   250,000원대</p>	<p><b>자음생크림 라이트 랜턴컬렉션</b> 인상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고 아시아 지역의 빛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적용한 인상 안티에이징 크림(선풍한 질감)</p> <p>60ml   250,000원대</p>	<p><b>매화지향 향유</b> 백매화의 생명력을 담은 은은한 향으로 지친 피부와 마음에 에너지를 선사하는 오일 타입의 향수</p> <p>30ml   130,000원대</p>
--	--	--	--	--	---

<p><b>윤조지향 향초</b> 나무의 따뜻함으로 내면의 감성을 깨우는 기쁨 있는 향의 소이왁스 향초</p> <p>200g   100,000원대</p>	<p><b>매화지향 향초</b> 백매화의 고귀한 향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선사하는 소이왁스 향초</p> <p>200g   100,000원대</p>	<p><b>윤조지향 포푸리</b> 한방 원료와 나무의 따뜻하고 기쁨 있는 향의 조화로 공간을 고급스럽게 채워주는 한방 포푸리</p> <p>100g   120,000원대</p>	<p><b>매화지향 포푸리</b> 한방 원료와 백매화의 생명력이 담긴 향의 조화로 공간에 생기를 채워주는 한방 포푸리</p> <p>100g   120,000원대</p>	<p><b>윤조지향 향수 스프레이</b> 나무의 따뜻함을 남기는 동양적인 유미 계열의 기쁨 있는 향이 담긴 향수 스프레이</p> <p>15ml×2ea   120,000원대</p>	<p><b>매화지향 향수 스프레이</b> 백매화의 생명력과 고귀함을 담은 향이 담긴 휴대가 간편한 향수 스프레이</p> <p>15ml×2ea   120,000원대</p>	<p><b>에센셜 밤</b> 바디부터 헤어까지 선풍적인 홀리스틱 뷰티를 경험할 수 있는 멀티 보습 밤</p> <p>10g   40,000원대</p>	<p><b>딥 릴렉스 밤</b> 천연 성분으로 지친 피부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릴렉스 밤</p> <p>10g   40,000원대</p>	<p><b>립 틴트 밤</b>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가꾸주는 보습 립 틴트 밤</p> <p>10g   40,000원대</p>
--	--	---	---	---	--	--	--	---

<p><b>공중비누 - 소나무</b> 청량한 소나무 향이 미용과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b>공중비누 - 홍삼</b> 깊은 한방 향이 활력을 선사하며, 향신료 효능의 홍삼전액을 함유한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b>공중비누 - 살구</b> 싱그러운 살구 향이 기분을 전환시켜주며, 피부로 가꾸어주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b>공중비누 - 매화</b> 백매화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며, 깨끗하고 청아한 향이 피부에 생기를 부여하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비누</p> <p>100g   25,000원대</p>	<p><b>핸드워시 백은향</b>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플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은은한 매화 향이 기분을 맑게 해주는 핸드워시</p> <p>300ml   36,000원</p>	<p><b>핸드워시 흑진향</b> 한방 오일과 고보습 젤 포플러가 손을 촉촉하게 감싸고, 묵직하고 풍부한 향이 활력을 선사하는 핸드워시</p> <p>300ml   36,000원</p>	<p><b>홍삼발효차</b> 제주 삼나무와 숙성된 후 발효에 귀한 홍삼을 발효한 발효차</p> <p>1.5g×10ea   25,000원대</p>	<p><b>매화차</b> 눈 속에서 피어나 봄의 희망을 전하는 청초하고 우아한 매화를 담은 매화 허브티</p> <p>1g×10ea   25,000원대</p>	<p><b>세차</b> 곡우 절기에 제주 차 밭에서 채취된 어린 차잎을 담은 전통 작살차</p> <p>1.5g×10ea   20,000원대</p>	<p><b>삼다연 제주영굴</b> 제주 삼나무와 숙성된 후 발효차에 제주 영굴을 더한 블렌딩 티</p> <p>1.8g×10ea   15,000원대</p>
--	--	--	--	---	--	--	---	---	---



### 오래된 미래를 만끽하다 〈차경(借景), 운경고택을 즐기다〉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전통 서울식 한옥 운경고택의 문이 5월 한 달간 활짝 열린다. 선조들이 집 안으로 자연을 들이고 즐겼던 방법인 '차경'과 장응복, 하지훈 작가의 공예 작품을 한번에 누릴 수 있는 멋들어진 전시와 함께.

간결하고 아름다운 맛을 굳건하게 지켜온 운경고택은 1980년대 국회의장을 지낸 윤경 이재형이 작고하기 전까지 40여 년을 머물렀던 집으로, 서울 상류층 가옥의 품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한 이곳은 윤경이 기거할 때만 해도 수많은 정객이 드나들며 시대를 논하고 차와 음식을 즐긴 생동하는 기운이 넘치던 곳이었다. 그동안 장학재단인 윤경재단이 운영하며 일반인들에 드물게 열렸던 운경고택이 빗장을 풀고 손님들을 맞이한다. 한옥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인 '차경'을 주제로 장응복 패브릭 디자이너, 하지훈 가구 디자이너와 함께 운경고택 곳곳을 꾸민다. '차경'은 한옥의 창과 문을 여닫을 때마다 다양하게 보이는 풍경을 액자처럼 즐겼던 선조들의 지혜로 운경고택의 안채, 사랑채, 대청마루와 라일락꽃이 흐드러진 정원의 운치를 고스란히 취할 수 있다.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운경고택과 한국적 아름다움이 깃든 장응복, 하지훈 작가의 기품 있는 작품들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는 맛과 여유를 향유하는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일시 5월 1~31일 장소 운경고택 문의 02-737-1777

### 전시 〈안팎도 사는 데 지장 없는 전시〉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을 소재로 한 100여 점 작품을 통해 예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참신한 전시다. 전시장을 아침, 낮, 저녁, 새벽으로 구성하고 순수미술, 그래픽, 모바일, 포스터 등 다양한 예술을 만날 수 있다. 일시 9월 15일까지 장소 서울미술관 M1 문의 02-336-0100

### 가무극 〈나빌레라〉



일흔 살에 발레에 도전하는 노인 덕출의 꿈과 스물셋 청년 발레리나와의 교감을 그려낸 작품이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배우 진선규가 참여해 탄탄한 원작과 좋은 배우의 활약이 기대된다. 일시 5월 1~12일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문의 02-623-0986

### 전시 〈한국화의 두 거장\_청전·소정〉



청전과 소정은 경제 단련 등 조선시대 대가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한 현대미술사의 거장이다. 이들의 작품을 통해 근·현대 한국화의 흐름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자연과 풍경을 묵향 가득한 한국화로 만끽할 수 있는 전시다. 일시 6월 16일까지 장소 갤러리현대 문의 02-2287-3500

##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 윤조에센스 스타컬렉션(5명)

설화수의 핵심 처방인 '자음단™'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이상적인 형태로 끌어올려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리셋하는 윤조에센스의 리미티드 디자인입니다. 120ml의 대용량으로 피부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한 윤기를 부여합니다.



### 진설아이크림(3명)

고농축 적송 성분과 복령, 송이 추출물이 더해져 세월의 흐름으로 생겨난 눈가 피부 주름을 감추어주고 또렷한 눈매로 가꾸어줍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9년 6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윤조에센스 스타컬렉션, 진설아이크림
- 당첨자 발표 2019년 7/8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 2019년 3/4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 설린크림(5명)

- 김은지 대전시 중구 당지로
- 민소영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 임성희 경북 안동시 옥서길
- 정윤지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 최영숙 부산시 서구 동대로

#### 설린에센스(5명)

- 박명선 부산시 강서구 과학산대로
- 신혜원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 전혜원 강원도 강릉시 경포로
- 조영란 충북 공주시 관골2길
- 최순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19년 3/4월호 당첨자 선물은 5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7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현대백화점 가든파인점 02-2673-2133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032-430-1479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6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5.07.01~2024.09.0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40861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1. 펼치다

설화지혜(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피부 섬기기(1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新 장인을 만나다(1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공간미감(2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진너다(28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2. 누리다

설화인(3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어우러지다(4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풍경(5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보감(5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아름다운 기행(6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수를 말하다(6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공간(7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8p)w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한국의 멋(8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설화애장(84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읽다(86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집 안 단장(90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몹 단장(92p)	매우 만족	7	6	5	4	3	2	1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윤조에센스 스타퀼렉션       진설아이크림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5/6월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6월 15일입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엽서 추첨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엽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엽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가이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b>강원도, 충청도</b>	
엠펙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러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 면세점

롯데 김포공항 면세점	02-2669-6730
롯데 명동 면세점	02-759-6662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02-3213-3865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신라 장충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4488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부띠끄	032-743-2151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032-743-2168
신라 제주 면세점	064-720-7324
신라 제주공항 면세점	064-720-0055
HDC 신라 용산 면세점	02-490-3351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10
신세계 강남 면세점	02-6288-0767
신세계 센텀 면세점	051-775-3141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84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탑승동	032-743-5784
시티플러스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18
에스엠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1570
에스엠 인사 면세점	02-2120-6210.9
그랜드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0543
두타 동대문 면세점	02-3399-9236
동화 광화문 면세점	02-399-3123
한화 여의도 면세점	02-2136-2779
현대 무역센터 면세점	02-2142-6220
JTO 중문 면세점	064-766-9019

